

할렐루야, 세상의 품과 가운데서도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빛과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13-14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4년 9월 14일 (토) 제 1984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기독교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이들에게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를 만나야 된다

최근 들어서 비록 자기네가 생각하기에 기독교가 거짓이지만 그래도 사회에는 이롭다고 주장하는 지식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마 가장 놀라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이자, 신무신론자(New Atheism) 4대 기수 중 한 명인 리처드 도킨스일 것이다. 영국 라디오 방송국 LBC와의 인터뷰에서 도킨스는 자신을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고, 기독교 가치로 운영되는 기독교 국가에서 살아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표현을 했다.



마찬가지로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더글러스 머레이도 인권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 가치를 중심으로 한 서구 문명 형성에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머레이는 심지어 자신을 “기독교 무신론자”라고 까지 불렀다. 기독교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지만 기독교가 진리라고는 믿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어떻게 해야 믿겠다는 질문에,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믿겠다”라고 대답했다.

다는 사실이 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히르시 알리는 역사가 톰 홀랜드의 영향을 받았는데, 홀랜드는 최근 몇 년 동안 기독교의 진리 여부를 의심하면서도 동시에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옹호함으로써 명성을 떨쳤다.

“모든 악의 근원”으로 조롱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미혹된 어리석은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서 신무신론이 상황을 주도하기는커녕 도리어 기독교가 다시금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무엇으로

진리를 부정하면 유익함도 없다

나는 “기독교 무신론”이라는 말이 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리는지 충분히 이해한다. 오로지 향기로운 장미와 귀여운 새끼 고양이로 가득한

환경 혼란에서 정치적 쟁점과 집단주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한 상태이다. 이 모든 것이 의미의 위기로 이어졌고, 많은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삶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도대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표현되는, 극적인 문화적 순간을 맞았다. 이 어찌 흥미진진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동시에 도전도 따라온다. 기독교는 단순히 좋은 조언이 아니라 좋은 소식, 복음이다. 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독교의 모든 좋은 것이 사실상 기독교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복음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

당신은 iPhone에서 “i”를 떼어낼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는 힘

스티브 잡스는 예언자였나 보다. 적어도 그는 자신이 개발한 기기가 내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지는 정확하게 예측했다. 그는 “i”라는 글자를 “Phone” 바로 앞에 두었고, 휴대폰이 내 인생에 들어온 이후 내가 어디에 있던 휴대폰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십 대 시절 사춘기의 기록을 거치면서 나와 휴대폰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졌다. 내가 휴대폰이었고, 휴대폰이 내가 되었다.

하지만 iPhone은 단지 내 정체성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아예 새로운 나를 만들어냈다. 현실에서 나는 룩 사이먼이었다. 하지만 iPhone에서 나는 luk3simon이었다. 룩 사이먼은 타인의 인정을 갈구했다. 하지만 luk3simon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룩 사이먼은 데이트 거절에 낙담했다. 하지만 luk3simon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미소를 지었다. 룩 사이먼은 좋은 삶을 갈망했다. 하지만 luk3simon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점점 더 나 자신과 같게했다. 그럴수록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더 열심히 luk3simon이 되어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사는 게 더 쉬웠다. 셀카 속에서 얼마든지 멋진 나를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진짜 거울 속 나를 보며 속상할 이유가 없었다.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데, 뭐 하러 굳이 현실의 하나님을 마주해야 할까? 얼마든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굳이 왜 고통을 대면해야 할까?

(9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푸른초장 김동권 목사



개혁주의윤리학 이길호 목사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아리 | 시년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www.rptseast.org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 아시아 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준회원입니다.

MOU Signing Ceremony Between GRS and RPTSE
GRS 신학교와 동부 개혁 장로회 신학교
MOU 체결
THURSDAY AUGUST 15TH 2024

2024년 가을학기에 국내외 저명한 상담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Th.M(성경적 상담학 석사)을 개설합니다. 특별히 성경적 상담학 석사 과정은 조지아에 위치하고 있는 GRS(Global Reformed Seminary)와 학점교류 MOU를 체결하여 양 신학교의 졸업장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m(성경적 상담학) 원서접수 마감: 9월 14일(토)
첫 수업: 9월 24일(화) 오후 7시(동부시간 기준) Zoom 수업 진행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l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학감 정기태 목사: 917-733-7387
사무실: 718-463-7163 / www.rptseast.org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김준수 박사	학력 B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경제학) M.Div 웨스트민스터신학교 D.Min 웨스트민스터신학교(상담학)
 황규명 박사	학력 BL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M.Div 웨스트민스터신학교 D.Min 웨스트민스터신학교(상담학)

경력
아세아신학대 대학원 교수(상담학)
아세아신학대 대학원 교학처장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감독상담사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방송(CBS, 극동방송)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상을 이기는 지혜 솔로몬”
“오직 주님께, 치유의 말씀”
“상담학교”

경력
전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교수(실천신학)
전 총신대학교 교수(상담학)
한국 성경적 상담연구원 원장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 회장
서울 사랑의 교회 협동목사

저서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위기의 시대 기회의 시대
인터넷 중독과 성경적 상담

* 지난 주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광고가 불확기 광고로 잘못 게재 되었습니다. 이점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론

세상을 대적할 용기를 내어야할 때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서울대 홍성욱 교수의 최근 칼럼에서 흥미로운 질문을 보았다.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한 내용이라고 했다. 그 질문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나겠는가, 안 나겠는가?"라는 것이었는데, 소리가 난다고 대답한 학생이 70%,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대답을 한 학생이 30%였다고 한다.

이 질문은 사실 최근 어느 OTT드라마 초입부에 던져진 상징적인 질문이었다고 한다. 드라마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꺼림칙한 상황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을거라고 넘겨버리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홍 교수는 이런 질문을 제시하면서 고대 중세의 정신을 지배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소리가 난다'를 답으로 가르쳤지만, 17세기 과학혁명 시기에 등장한 근대과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을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나무가 쓰러지면 공기의 진동은 있지만 쿵 소리는 나지 않는다'는 답과 '만일 우연히 그 숲에 사람이 있다면 그 진동을 쿵 소리로 들을 수 있다'는 답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이 근대과학 세계관이라고 밝혔다.

이 설명을 위해 물체의 1차 성질(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같은 입자의 크기, 모양, 배열, 숫자 등), 2차 성질(실제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색깔, 냄새, 맛, 소리, 촉감 등)에 대해 덧붙이고 있는 과학 전공의 홍 교수는 드라마에서 던진 이 질문을 가지고 과학적 풀이를 해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원래 드라마에서 선택한 이 말이 가진 속뜻(意味)이다. 속뜻, 바로 기독교 신앙이 짊어낼 수 있는 죄(罪)의 문제로서 이 말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 무언가 있는 꺼림칙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보았으니까 별 일 없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자기변호를 하며 넘겨버리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분명 죄에 대해 무디어진 시대가 되었다. 성경이 밝히 알려준 죄들일지라도 우리가 막아서면 충분히 덮을 수 있다는 교만의 시대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교회들이 모인 교단 안에 이미 그러한 교만과 아집은 막강한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고, 적은 규모의 교회들 안에서도 자기들만의 카르텔로 '진리'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구축하고 있는 그룹이 있다. 오늘날 교회의 부끄럽고 무서운 모습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분명, 진리의 사람들, 겸손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 없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다양한 형태의 '교만 카르텔'이 교회를 잠먹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예라고 답해야 할 때는 분명히 예라 답할 수 있는 용기, 아니오라고 답해야 할 때는 그야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는 정직한 용기가 신앙이다.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성경은 '성결(聖潔)'이 바로 그 정직한 용기라고 말해주고 있다.

가을, 노후들이 회집되는 계절이다. 노후와 교회들이 성(聖)모임이라면 부당하거나, 부정직하거나 불결한 것에 대하여 정직한 용기를 내어야만 한다. 최근 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핸드볼협회, 축구협회 등 사회적 문제만이 아니라, 곳곳에 숨겨져있는 카르텔적 비신앙요소들에 대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나겠는가, 안 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신앙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미 견고해진 여러 강력(剛力) 앞에서 아직 기회는 열려있다. 더러움을 씻어낸 깨끗하고 정직한 신앙, 거기에서 드디어 대적할 용기가 나올 것이다. djlee7777@gmail.com

스펠전의 '고통의 목회' 신학

고난을 통해서 섬기는 주인을 닮아가는 자

스펠전 목사의 설교 은사와 사역 성공은 바라지만, 그가 겪은 고통까지 원하는 목사는 거의 없다. 출판된 스펬전의 설교는 그야말로 그가 고통에 시달리는 영혼을 위한 설교의 대가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런 설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자신도 같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목사의 삶에서 고통은 우연도 불행도 아니다. 스펬전에게 사역과 고통은 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목회 전체에 수반된 하나의 조건이었다.

그리스도와 맺은 독특한 관계 때문이라도 신실한 사역을 바라는 목사에게 고통은 꼭 필요하다는 게 스펬전의 주장이었다. 목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이다.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므로, 목사는 고통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또한 고통은 고통 자체가 주는 유익 때문에도 목사에게 필요하다. 고통은 목사로 하여금 진리를 경험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또한 사역에 필요한 공감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진액을 빼는 사역

스펠전의 삶을 채운 건 놀라운 사역과 더불어서 그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이었다. 예를 들어, 그는 만 번 이상 설교했지만 때로는 너무 아파서 설교 중에 강대상에서 실려 나온 적도 있었다. 치솟는 인기와 성장하는 교회로 인해 할 일은 끝이 없었지만,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핵심이 되는 목회 사역을 결코 회피하거나 위임하지 않았다.

스펠전은 편안한 사역이야말로 거짓 사역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한 목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역을 안락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축음을 맞을 것이다." 참된 사역자는 "엄격한 노동"의 표시를 가지지 마련이다. 진액을 쏟는 사역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즉 많은 영적 필요와 질병을 지닌 양들, 또한 멀리 돌아다니며 종종 목자들에게 큰 문제까지 일으키는 양들을 적절하게 돌볼 수 있겠는가? 안락을 추구하는 목사는 보통 몇 마리의 양 정도는 열매까지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역에서 느끼는 긴장에 대한 스펬전의 논평은 그의 휴식과 갱신 실천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871



년부터 스펬전은 보통 두 달 일정으로 매년 회복을 위해 프랑스 뎬통으로 떠났다. 그는 장기적인 유용성을 위해 휴식을 가르치고 실천했다. 따라서 사역 긴장에 대한 그의 경건한 발언은 목회 실천에 대한 초인적인 처방이라기보다는 목회 정체성에 대한 비전과 더 관련이 있다.

꼭 필요한 고통이 주는 축복

사역에서 오는 스트레스 감수 외에도 스펬전은 여러 다른 시련을 겪었다.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슬픔이었다. 통풍과 다른 몇몇 질병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은 그는 1867년 이후로는 몇 주 동안 정기적인 목회 업무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1879년에서 1892년까지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정신적 고통도 매우 심각했는데, 특히 서리 뮤직 홀 참사 이후 평생 우울증과 불면증, 심각한 감정 변화와의 싸움을 벌여야만 했다.

스펠전은 고통이 신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유익을 준다고 믿었다. 특히 그는 다양한 악이 목사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점에 대해서도 숙고했다. 편안하고 변영하는 시기에 목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거나 영원을 고려하지 않는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

서 목사는 자신이 전파하는 진리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운다. 스펬전은 "체험을 통해 알기 전까지는 누가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스펬전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가 견지한 사역 신학이라는 렌즈가 필요하다. 그가 겪은 고난이 그의 사역을 형성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사역에 대한 그의 신학이 고난으로 이어졌고,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사역을 계속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고난이야말로 그가 인쇄실을 가지고 견뎌낸 모든 시련을 해석하는 일관된 렌즈였다.

목사가 겪는 고난 중에는 특정 사람들로 인한 특별한 고난이 있다. 목사는 성도가 겪는 삶의 전형이 되어야 한다. 성도를 치유하기 위해 그들이 겪는 유혹을 겪어야 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의 슬픔을 느껴야 한다. 목사의 영적 경험은 때때로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양들이 멀리 돌아다니면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때때로 애초에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았다면 결코 돌아다니지 않았을 곳까지도 목자라면 가까이 가야 합니다." 목사는 유혹과 시련까지도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적합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Step 2: 주문하기
Step 3: 시안확인/수정
Step 4: 상품수령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기독교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1면에서 계속)

파라독스 지적하기

한 가지 방법은 역설을 지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구평면설 학회'에 헌신적인 회원인 절친한 친구가 있다는 가정해 보자. 어느 날, 그 친구가 방금 세계 일주 크루즈에 당첨되어 다음 주부터 2개월간 세계를 구경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기쁘다고 말한다.

"어, 그런데 넌 지구가 평면이란 걸 주장하는 인간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크루즈 여행이 가능해?"라고 내가 묻는다.

"아니, 앤디, 그럼 둥근 지구 옹호자만 세계 일주 크루즈를 탈 권리가 있다는 거야? 무슨 그런 오만한 소리를 해?" 친구가 항의한다.

"물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사는 건 네 자유야, 하지만 네가 기대하는 그 여행이 즐거우려면 그건 오로지 지구가 둥글 때에만 가능해, 그게 현실이야."

도킨스, 머레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를 자유롭게 믿을 권리가 있다. 문제는 그 모든 가치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독교 신앙과 단절될 때 모든 의미가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인권, 가치, 존엄성에 대한 개념의 뿌리를 추적해 보라. 그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이며, 창세기 1장이 주는 근본적인 가르침에서 유래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26-2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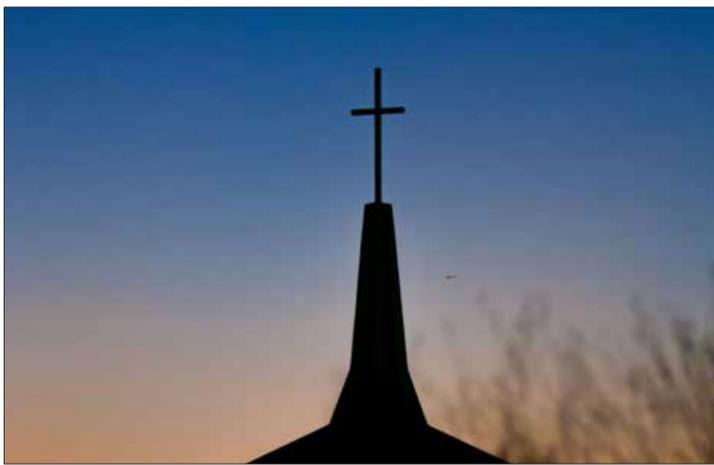
오늘날 "기독교 무신론자"가 이 모든 뿌리를 거부하면서도 이 개념이 가져다 준 열매를 누리려 하는 뻔뻔한 욕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세기 전, 무신론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다음과 같이 썼을 때 이러한 긴장은 이미 드러났다.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면 기독교 도덕에 대한 권리가 발밑에서 빠져나간다. 이 도덕성은 결코 자명한 것이 아니다 ... 기독교는 하나의 체계이며,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진 전체적 관점이다. 따라서 그 가운데 하나의 주요 개념,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면 전체가 깨어진다. 즉, 사람의 손에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진리를 부정하면 유익함도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니체에게 동의한다. 도킨스, 머레이, 홀랜드, 히시 알리가 기독교에서 본 사회적 선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에서 흘러나온다.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면,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증명했다면(롬 5:8), 그제야 비로소 인권, 존엄성, 가치, 자유에 대한 모든 이야기의 의미를 갖는다. 반면에 우리가 단지 움직이는 분자 덩어리에 불과하다면 기독교는 기껏해야 동화이고 최악의 경우 망상으로 전락한다.

히시 알리는 기독교 개종을 발표한 기사에서 기독교를 단지 사회에 유익한 무엇으로 보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물론, 나는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 배울 것이 많이 있다. 나는 주일마다 교회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발견한다. 하지만 나는 존재라는 도전 앞에서 두려움과 자기 의심이라는 광야를 헤쳐 나가는 긴 여정에서 기독교 안에 이슬람 또는 불신앙이 제공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최근 리처드 도킨스와의 대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기독교가 주는 유익함에 대한 그녀의 감사와 더불어 예수님의 이야기와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연결한 것이다.

구하고 기도하라

그럼 우리는 인권, 문화, 진실, 예술, 문학 등 기독교의 유산을 알리와 비슷하게

점점 더 높이 평가하기 시작한 이들이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나는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취한 접근 방식인 "궁금해 하는" 질문의 힘을 믿는다. 친구들과 함께 그들이 높이 평가하는 가치에 대해 논의해 보라. 그들의 관점을 칭찬하고 또 담대하게 질문하라. 왜 그 가치가 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중요성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하라. 그리고 그들이 근거로 여기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경우에, 그런데도 그 가치가 왜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물어 보라.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살면서 기초가 없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기도의 힘을 잊지 말자. 도킨스나 머레이 같은 사람들이 일거양득을 노린다고 욕하는 건 쉽다. 케이크 먹고 싶다면서 제빵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뻔뻔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하

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할 신무신론은 이제 오래된 이론, 말 그대로 현실로부터 무려 몇 광년이나 떨어진 구닥다리가 되었다. 도킨스 같은 사상가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자. 우리는 이제 그들을 격려해야 한다. 책 한 권 선물하면 어떨까? 순전한 기독교, Have You Ever Wondered? 같은 책이 좋을 것이다.

고대 기독교와 현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힘을 내야 한다. 기독교 역사에는 사회에 끼치는 기독교의 이점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마침내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을 만난 C. S. 루이스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by Andy Bannister, TGC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겸손함을 키우고, 설교 내용을 직접 체험하고, 유혹받고 시련을 겪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목사는 고난을 통해서 그가 섬기는 주인을 더욱 닮아가고 그를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이다.

by Leland Brown, TGC

목회단상

나의 행복과 너의 행복은?



손기성 목사 (은혜장로교회)

어떤 단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중 하나가 '행복'이란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도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개념을 떠나서 생각해봐도 누구는 행복이라 말하는데, 누구는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여겨 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행복에 대해 고민하며 정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막연히 '무탈하니 행복 아니겠는가'하는 식의 정의가 아닌 머리와 가슴으로 말할 수 있는 행복에 대하여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행복을 위해 감당치 못할 대가를 지불하기도하고 반복적인 후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고국 뉴스에서 한국에 말만하면 알만한 그룹의 총수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자가 행복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총수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보다 누구와 먹느냐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요?"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답의 이면에는 엄청난 복선이 깔려 있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계적으로 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몇 십년을 같이 살고, 자녀가 몇이 있느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자신이 사랑하고 함께 식탁을 만들 사람을 만나고 그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이나 개념 정의가 틀렸다 맞다를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일어나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 지고 있는 것이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 회장님은 지난 과거 감옥에서 성경을 보며 은혜를 받고 출소할 때도 성경 한 권만 들고 나와 세간에 이목을 집중시킨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행복으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모양과 가치와 기준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절대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의 불행이나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을 통해 내가 얻는 유익이나 감정을 행복이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고국 방문 때 관공서와 은행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지 못했던 문구들이 가는 곳마다 창구마다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대면하시는 직원은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라는 문구였습니다. 표현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같은 의미의 글들을 붙여두었습니다. 일하면서 얼마나 합부로 대했으면 이런 부락까지 써 붙일 지경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인가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자신의 생각과 의미보다 이타적인 삶을 가지 있게 여기셨고,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도 자신의 입장보다 타인을 존중하는 모습 속에서 더 크고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자신보다 타인에게 맞춰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좀 불편하고 모자라도 '함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행복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Word4u@gmail.com

스펠전의 '고통의 목회' 신학

(2면에서 계속)

오늘날 목회를 위한 스펠전의 통찰

겉보기에 마냥 무작위로 닦치는 것 같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괴로움을 목사는 어

떻게 처리해야 할까?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괴로운 유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행여 당신의 사임을 노리는 다루기 힘든 집단이 교회 안에 있다면, 다른 사역지를 찾아야 할 때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당혹스러운 시련을 겪는 목사에게 스펠전은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한 엄청난 고무적인 진실을 현명하게 알려준다. 목사는 고난을

Graduate School International Culture and Art Midwest University

**미드웨스트 대학교
국제 문화 예술
대학원**

Location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Contact

art@midwest.edu
(636) 327-4645
www.midwest.edu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강의를 통해 창의력을 발전시킬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MFA/DEA

Art Education	Arts Therapy	Ceramic Art
Ballet / Dance Performance	Design Art	Jewelry Design
Natural Lacquer Art	Painting Art	Photography
Sculpture Art		

학점 학위 취득 방법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 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 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 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 가능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카페와 코르네토

이태리에서 조반을 먹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다려진다.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았다는 기쁨! 아침에 클라우드 공원 걷기를 마치고, Bar에 들어갔다. 그리고 코르네토(Cornetto)와 카푸치노(Cappuccino)를 시켰다. 가격이 올랐다고는 하

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렴하다. 합해서 2유로 50센티이니... 요즘 유로가 많이 올라서 우리 돈으로 3천200원 정도 될까? 이태리에서는 대체로 시민들이 조반을 집에서 하지 않고 Bar에서 주로 한다. 부인을 배려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러

니 정서적으로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겠다 싶다. 아침에 먹는 빵을 코르네토(Cornetto)라고 하는데 황소 빵에서 기인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크로아상(Croissant)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기원이 흥미롭다. 그런데 프랑스가 크로아상을 먹게 된 신화(?)가 있다. 1683년, 전 중동 지역을 점령한 오스만 제국이 남유럽을 질풍노도처럼 휩쓸어 왔다. 인간 역사는 특정한 국가가 힘을 가질 때, 어김없이 전쟁을 일으키게 됨을 세계사는 진술하고 있다. 오스만 제국은 오스트리아 공국, 빈을 겹겹이 포위하였다. 워낙 튼튼한 성이었기에 정복하기가 만만치 않게 되자 성벽 밑을 파고 폭탄을 이용하여 파괴하려고 했다. 우리도 북한 의 땅굴로 가슴이 절렁했었는

데, 그 기원이 오스만 제국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땅굴을 파고 들어가 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마침 새벽에 일어나 빵을 만들기 위해 일하던 제빵 기술자가 땅속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성밖에는 오스만 제국이 포위한 상황이었기에 이 사실을 즉시 방어하는 군 책임자에게 알렸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빈은 위기에서 헤어 나올 수 있었다. 그 후 오스트리아 대공 레오폴트 1세는 그날의 승리를 잊지 않기 위해 제빵사에게 오스만 제국의 국기로 사용하는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들도록 주문했다. 그 후부터 초승달 모양의 빵(Hornchen-독일어로 작은 뿔)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이것은 곧 오스만의 터키인

을 먹는 상징적 행위이었다. 그게 바로 크로아상(Croissant)의 기원이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공주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결혼함으로써 크로아 상도 이식되었다. 그 후부터 초승달의 모양인 크로아 상은 프랑스 국민의 사랑 받는 먹거리가 되었고 프랑스 뿐만 아니라 세계적 명품이 되었다. 또 다른 얘기도 있는데, 1839년, 파리의 비엔나 과자의 창립자 August Zang의 작품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의 키페를(Kipferl)에서 나왔다고 한다. 자료를 찾아 보니 이태리의 도시마다 이름이 다르다. 이태리 북쪽 지역은 부리오쉬(Brioche), 로마는 코르네토(cornetto)... 제일 비싼 부리

오쉬는 나폴리에 있는데 하나가 25유로라고 한다. 부리오쉬는 카푸치노와 공합이 너무 잘 맞는다. 춘향이와 이몽룡처럼, 그런데 카페는 베니스 상인들에 의해 오스만 제국을 통해 들어왔다고 한다. 결국 오스만 제국은 유럽인에게 오늘날 필수 불가결한 카페와 크로아 상으로 조반을 즐기게 한 셈이다. 참고로, 카페가 들어온 연도는 베니스-1640년, 옥스퍼드-1650년, 런던-1652년, 프랑스-1654년이라고 한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맛있게 드세요, 카푸치노와 코르네토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앉아 조반을 하시지요!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김동권 목사
(뉴저지교협회장, 뉴저지 새사람교회 담임)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소문만 듣고 함부로 말해도 안 됩니다. 대충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다간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라"라는 식으로 함부로 말하다간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잘못 하면 당사자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 알고 말해야 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흘러가는 말을 주위 듣고 마치 사실인양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까요? 누가 그러던데로 시작하면서 마치 사실인양 말하다 보니 싸움 나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언성이 높아 집니다. 분위기가 심각해 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까요.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분이 계시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길인데 자꾸 헛된 길로 갑니다. 죄악을 일삼는 길로 갑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배반할지언정,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다. 그 외 하나님은 지혜, 전능, 섭리, 그리고 초월하시는 삼위 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뻔히 나를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허튼 짓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속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분이 계시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길인데 자꾸 헛된 길로 갑니다. 죄악을 일삼는 길로 갑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배반할지언정,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다. 그 외 하나님은 지혜, 전능, 섭리, 그리고 초월하시는 삼위 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뻔히 나를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허튼 짓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속입니다.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거룩함으로 삽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해 집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을 신뢰하면서 결코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힘으로 대적합니다. 사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심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치게 하고 힘들다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의 영광으로 가득 하도다"라고 천사들이 외칩니다. 거룩함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함에 대한 심오한 진술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을 신뢰하면서 결코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힘으로 대적합니다. 사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심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치게 하고 힘들다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자들을 사랑하라. 9-10절입니다. *당신의 삶을 잘 이끌 어라. 11-12절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손으로 일하라.. 이것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손으로 일하지 않으면 너무 많이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하게 됩니다. 자연히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일에 손으로 수고하면 할수록 존경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게 해 줍니다. 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분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결국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데살로니가전서 4:1-12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분이 계시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길인데 자꾸 헛된 길로 갑니다. 죄악을 일삼는 길로 갑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배반할지언정,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다. 그 외 하나님은 지혜, 전능, 섭리, 그리고 초월하시는 삼위 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뻔히 나를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허튼 짓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속입니다.

하와의 착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안 보시고 계시는 줄 알았습다. 하와가 뱀과 대화하는 내용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보십니다. 뱀이 유혹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에 홀딱 넘어 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죄를 막아 주어야 하지. 왜 나중에 야단을 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 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 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셨습다. 하와가 보고 먹 음직하고, 보양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말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만족과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었 4:22-24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속이는 정욕으로 씌어져 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어떤 동작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지 알게 합니다. 더 나아가 그 행동이 나를 이끄는 동기가 되 게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는 우선 내면에 동기가 분명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확신 합니다. 오직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와 가까워 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대하십니다.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마다 거룩함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배우라. 살전 4:7에 더러움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씀 합니다. 거룩함속에서 사는 것은 평범하고, 세속적인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의 삶은 먼 훗날에 그렇게 살지 뭐 하는 생각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분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변화의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 봅시다. 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이니라"고 말씀 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 교만, 자랑,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이제 세상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일하심을 제대로 버리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의 삶은 먼 훗날에 그렇게 살지 뭐 하는 생각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분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변화의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 봅시다. 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비용이 드는 보람 있는 삶

하나님은 영적 컨설턴트 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변호사입니다. 그 분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상의한다할지라도 도와줍니다. 만족할 만큼 지혜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은혜로 보상 합니다.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자기 의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욕망을 철저히 부인해야 합니다. 매일 순수하고 거룩한 생각을 유지하도록 힘써 싸워야 합니다. 비용이 들지만 그렇게 살면 살수록 인생은 더욱 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후 5:9에 "그러므로 우리는 집에 있든 떠나 있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함을 강조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보상

라디오를 듣다 보면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컨설턴트는 무료 입니다. 그러나 보상은 백만불"입니다. 이 광고는 로펌 광고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거룩합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내 결정, 내 행동 중에서 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아무하고 눈치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거룩함 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당신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dkwonkim728@gmail.com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무엇을 하든지, 시작하든지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아무리 바빠도 생각할 여유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가지 영적 지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알려 줍니다.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살전 4:3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무슨 의미 인가요? 순수한 삶을 유지 하라 입니다. 자기 몸을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학대하지 말고, 당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신경 쓰다가 그들의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중신앙인들이 무너지고 참배 하는 사람이 그들의 말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보다는 세상을 생각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자연히 하나님을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십시오. 그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여 온 땅이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 가는 것입니다.*거룩하고 순수 하라. 3-8입니다.*모든 믿는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초 긴급! Action in Prayers! 기도로 실천해 주세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에게 여러분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안전한 내일과 그들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신속히 전화, 이메일, 온라인 댓글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에서 참조하실 수 있으며, 영문 편지나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온라인으로 댓글을 보내는 링크 역시 모든 필요하신 자료들은 저희 홈페이지 TVNEXT.org에서 사용하세요.

다음 발의안들은 이미 상원/하원에서 통과되어 주지사의 책상에서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좋은 법/악법들의 통과 여부는 주지사의 마음에 달려 있으며, 주지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통과가 꼭 필요한 발의안들: Good Bill

1. SB-1414: 성관계를 위해 아동을 사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합니다. (Crimes: solicitation of a minor) 현재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겨우 경범죄에 불과합니다. SB-1414의 원래 발의안 버전은 모든 경우에 중범죄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성년자 성관계를 여러 측면에서 허용하는 악법들이 민주당과 동성에 의회들을 통해 수년 동안 통과된 상황에서 SB-1414 발의안의 통과가 너무 어려워져서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원안을 조금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안보다 SB-1414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유죄 판결 시판사가 성매매가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 결정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며, 검사가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는 사실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성매매를 하는 업체나 개인들은 아동 성매매를 하고도 지금까지처럼 쉽게 풀려나는 일이 없게 됩니다.

2. B-268: 술에 취해 의식 없는 사람을 범하는 강간을 "폭력적인" 중범죄로 규정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당한 경우 강간이 "폭력적인" 중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강간범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규제 약물을 투여하여 술에 취하게 한 경우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강간을 "폭력적" 중범죄로 규정하기에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뿐 아니라 젊은이들까지 가



해자에 의해 자기도 모르게 몰래 약을 탄 술을 마시고 강간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성매매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들: Bad Bills

1. SB-729: 보험사가 동성 커플과 동성 독신자를 위한 "불임(IVF) 치료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발의안 부활! "불임의 정의"를 기존의 의학적 범위를 넘어 확대하는 발의안입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성경적 가족 모델을 계속해서 악법을 통과시키므로써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하나님께서 이성 간의 결합만이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며, 생물학적으로 절대로 자손을 가질 수 없는 동성애 독신자와 동성 커플들을 위한 보험 비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스스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험을 취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령, 장애 또는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에 대한 '차별'은 금지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즉,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 등등 모든 반성경적인 성향들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2. SB-1441: 법안들과 관련하여 주민 발의안을 포함한 이의제기 서명을 받는 것을 더 어렵고 비싸게 만듭니다! 이의제기자가 정부의 부정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수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며, 서명 검토에 걸리는 시간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제한됩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투표 발의안을 정부로부터 도전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예로, 올해 초에 Protect Kids of CA Act (PKCA) 같은 공식 법적 주민 발의안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이 지금도 비쌌는데, 지금보다 훨씬 비싸지고 서명을 받을 시간도 훨씬 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SB-1441이 통과된다면 전략적으로 2026으로 미루어 놓은 PKCA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3. AB-280: Transitional Housing Replacement: 과도기적 주택 교체 확대. 이 법안은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 또는 주장하는 25세까지의 남성이 위탁 보호 시스템에 있는 동안, 위탁 보호 중에 있는 여성이 16세 이상이면 25세까지의 남성이 16세 소녀와 같은 방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16세 이상의 소녀와 침대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학생들에게, 그것도 위탁 보호소에 있기에 이미 힘든 소녀들에게는 최고로 취약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B-2802는 단지 다음의 더 큰 악법을 위한 점진적 법안이며 내년에는 미성년자들의 연령이 더 낮아진 발의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막아주세요!

4. AB-1825: 이 법안은 공공 도서관의 어린이 섹션에서 성적으로 선정적인 자료는 물론 트랜스젠더 도서와 전시를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음란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의 어린이가 모든 책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뉴섬 주지사에게 반드시 이 악법에 서명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 외 반대할 법안들은 AB-2085, AB-2490, AB-1810, AB-2319, AB-2442, SB-954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 전화: 916-445-2841, 이메일: leg.unit@gov.ca.gov

할 말 / 편지 내용: My name is _____ and I live in _____ county in CA. Please PASS SB-1414 and SB-268. Please VETO (또는 REJECT) the following bills: SB-729, SB-1441, SB-954, and AB-2802, AB-1825, AB-2085, AB-2490, AB-1810, AB-2319, AB-2442.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에서 보세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로마는 기독교에 극심한 핍박을 했지만 한편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도 많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하와이안 가든 신 선교사가

A: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면 항상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1) 첫째가 성경이요 둘째가 역사요 셋째가 문화입니다. 바울의 선교도 로마의 기독교 핍박 시대에 이루어 졌지만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로마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회사를 전공하신 김인수 목사의 "매일의 목상"을 어느 목사님을 통해 선물로 받았는데 이 책에는 로마가 바울사도의 선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가 로마제국의 광활한 영토입니다. 로마는 로마시만 뿐만 아니라 로마 속국의 시민도 로마의 영토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전도하려 다니는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니다. 로마제국 내에서는 여권도 비자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사도가 선교여행 중에 한번도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그가 로마시민 이었고 여행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선교에 끼친 긍정적 요소

2) 교통의 편리입니다. 로마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넓은 길 도로가 필수였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부족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수시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니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군인을 실은 마차들이 빠른 속도로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잘 닦여진 도로가 사방으로 뻗어 있어야 효율적인 진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노예(들을 동원해 잘 닦여진 도로를 수 없이 건설하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그래서 신약시대에 바울을 위시한 많은 전도자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3) 언어의 통일입니다. 로마시대 서부에서는 라틴어를 동부에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언어만 사용하면 언어소통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오지인 선교현장에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여 산고개 하나만 넘어 다른 부족에게 가면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자도 없어 성경번역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로마제국의 언어통일이야말로 말로 전도자들의 복음 선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4) 치안유지입니다. 가끔 산적이거나 강도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군국주의를 하면서 군인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민간인을 괴롭히는 무리를 철저히 응징을 했기 때문에 치안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후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의 치안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아 마약조직이나 조직범죄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2천년전인 로마는 대체로 치안이 안전해서 전도인 들의 활동이 안전했다는 점이 복음 전파에 큰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제국에 혹독한 핍박을 받았지만 동시에 거대한 제국에 선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많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교차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기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및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연구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영양전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3) 821-1112, bescorpe@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말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다윗 The word korean Presbyterian church 42 N 1st street, Pacific Beach WA 98571 주일예배: 오전 11:00 Tel: (360) 907-7271, blescolto@yahoo.com 3806 Country Club NW, Olympia, WA 98502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891, 267-471-7777, Fax: (610) 222-0892 3286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벨렐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부흥예배: (성경)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948
센터빌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 (703) 58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알킨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 920-9049, www.je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델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Greenwood St., Anch., AK 9850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lshei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오광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영양예배: 오후 3:00 금요영양예배: 오후 5:30(월-금)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월-토) Tel: (254) 213-1200, (254) 659-3176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tacomapcc.com 9424 S. Yekor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웃음 뒤에서 신음하는 내면

오늘 뉴스를 보면서 나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인기가수의 숨겨진 진실이 소개되었는데 참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내용의 진위여부는 언제가 가려 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아픔 혹은 고통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그는 대중 앞에서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의 웃음 뒤에 있는 그 내면은 얼마나 아파하며 통곡하고 있었을까를 생각하니 세상이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졌다. 뛰고 있는 나의 맥박이 먹먹해

졌다. 이 세상을 어이할꼬? 신경도 세포도 없는 마음이 감당하기 어렵도록 아파왔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한다. 문제는 그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또는 드러난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깊게 패인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인생을 고(苦)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죄된 인간들 사이에서는 언젠고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 누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 무서워진

다. 한민족의 역사에는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다름들이 많았다. 당장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남북의 대적은 역사가 아닌 현실이기도 하다. 고구려가 망한 원인은 연개소문의 세 아들이 벌인 정변에서 찾을 수 있다.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면 남편도 자식도 다 장애물로 여겨지는가 보다. 형제는 말할 것도 없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시기(猜忌)에 연유한다.

조조의 아들 조식이 남긴 시를 한 번 살펴보자. 그의 형인 조비가 동생을 시기하며 죽일 죄를 꾸며 형제라는 제목의 시를 짓되 형제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게 지으려 했다. 그때 조식은 “콩대를 태워 콩을 삶네. 콩이 솥 안에서 흐느끼니 같은 뿌리에서 자란 것끼리 끊고 끊임은 어인 일인가?”라며 한탄했다. 인간의 잔혹함을 이보다 더 적절히 표현한 말이 있을까?

세상이 점점 더 무섭게 변하고 있다. 바로 무심(無心)이다. 무심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감정이 말라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추지 않게 된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아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마 11:16,17)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희노애락(喜怒哀樂)은 절제하라고 주신 것일까? 아닐 것이다. 그런 감정들을 통해서 사랑의 진정함의 교감을 원하신 것이라 여겨진다. 나이가 들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친구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왜 친구가 없을까?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랑은 일방적일 수 있지만 우정은 일방적일 수 없는 까닭이다.

세상의 매마름은 곧 나의 매마름이다. 이를 되뇌면서 아주 작은 희망을 보았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반복하여 나오는 TV광고에 유니세프, 레스큐, 국경없는 의사회와 환경단

체 등에서 도움, 지원을 구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서다. 그런 단체들이 아무리 비영리단체라 해도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료를 지불해야 될 것이다. 만약 아무리 광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해도 그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런 광고들은 끊어지거나 중단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광고들이 몇 년째(내가 알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광고를 보는 누군가가 호응하고 있다는 증거다.

호응의 정도가 얼마나 충분한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광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가 다 무심하지는 않다는 최소한의 희망이다. 가랑비에 도둑이 젖을 수 있다면 그런 요청에 호응하는 최소한의 누군가들이 어둠을 밝히는 불을 켜게 되고 그렇게 켜진 불은 어둠보다 더 환하게 세상을 비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경을 이긴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곤경 혹은 절망의 상황에서 누군가 한 사람의 지지나 격려가 역경을 극복할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 사람에게는 절

대적 내 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 내 편은 배우자나 부모일 수도, 형제나 자매 또는 친구일 수도 있다. 그렇게 존재하는 그 내 편이 웃음 뒤에서 슬퍼하는 내면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혹 내게는 그런 내 편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라. 더 절대적인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좋아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 15:15,16).

점점 더 무심해지는 세상에서 웃음 뒤에 슬픔을 숨기고 아파하는 그 내면들에게 기계이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자. 오직 그분만이 세상의 희망이며 치료자가 되심을 알아. 힘써 알자!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응급실이 된 비행기...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8000피트(2438m) 상공. 9일 오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남쪽으로 기수를 돌려 말라위 릴롱게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항로를 따라 순항하던 비행기 내에 순간 긴장이 감돌았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통로를 건넌 6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는 가까스로 손을 뻗쳐 좌석 손잡이를 잡았지만 눈이 튀어나올 듯 팽팽해졌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괜찮으세요?” 승객의 불안한 상태를 감지한 스텐더디스가 A씨를 향해 연신 물었다. 스텐더디스는 승객들과 함께 일단 A씨를 통로에 눕혔다. 바로 그때 미국의 병원 응급실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베테랑 간호사가 급히 A씨에게 달려갔다. 간호사는 청진기로 A씨의 심장박동을 체크하고 혈압을 재더니 호흡이 곤란한 상태임을 직감했다. 승무원들은 급히 산소통과 비상의료함을 가져왔다. 이어 A씨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손가락에 산소포화도를 체크하는 측정기를 끼웠다. 나도 A씨의 벨트를 풀고 다리를 주무르며 작은 도움을 보냈다.



영국에서 온 의사도 가세했다. 의사는 A씨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수액을 맞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거치대가 없는 상황에서 옆 승객이 수액 팩을 높이 쳐들었다. 의사는 A씨 상태를 체크하면서 스텐더디스에게 릴롱게 공항 도착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었다. 총 비행 4시간 중 40분이 남은 상황. 비행기는 응급실이 된 듯 긴박하게 돌아갔다. A씨의 아내는 스텐더디스가 가져온 아이스를 수건으로 싸서 남편의 열을 내리고 동료 승객이 넘겨준 손 팬으로 얼굴에 시원한 바람을 더했다. 다행히 저혈압이던 A씨의 혈압이 오르면서 그는 의식을 되찾았다. 호흡은 여전히 가늘었지만 산소포화도는 92~96를 오르내리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착륙을 위해 동료 승객들은 A씨를 좌석으로 옮겨 눕혔다. 이윽고 비행기는 릴롱게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고 활주로에 대기중이던 안전요원들이 A씨를 부축해 앰블런스로 이동했다. A씨에게 응급조치를 했던 간호사는 베테랑답게 처음 이상조짐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한 스텐더디스를 거듭 칭찬했다. A씨 부인은 승무원들과 동료 승객들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남편을 평화롭게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듯했다.

A씨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미국 시카고를 출발해 말라위에서 선교활동을 위한 비전트립에 나선 길이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응급 상황을 바로 눈 앞에서 지켜보며 8000피트 상공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위기에 처한 승객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함께 도왔던 사람들의 선한 모습을 보며 성경말씀이 떠올랐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역만장자 탄 스페이스X 우주선 발사... '민간인 첫 우주유영'

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에 도전하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10일 발사됐다. 스페이스X는 이날 오전 5시23분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NASA)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폴라리스 던(북극성의 새벽)' 임무를 수행할 우주 캡슐 '드래건'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폴라리스 던은 역만장자이자 항공기 조종사인 재러드 아이작먼(41)이 이끄는 민간 우주여행 프로젝트다. 아이작먼은 미국의 결체처리업체 '시프트4'의 창업자로도 유명하다. 그와 함께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 2명과 퇴역 공군 조종사 등 모두 4명이 닷새간 비행하게 된다. 이들은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비행 궤도보다 3배 이상 높은 1400km까지 날아오를 계획이다. 성공하면 1972년 NASA의 마지막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반세기 만에 인류가 도달한 가장 높은 지점으로 기록된다. 비행 3일 차에는 스페이스X가 개발한 우주선 외부 활동(EVA) 전용 우주복을 입고 700km 고도에서 출애륙인 채 우주 공간에 나간다. 전문 우주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이 우주유영을 시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발사는 지난달 말과 이날 이른 시각까지 몇차례 기상 악화로 연기된 끝에 이뤄졌다.



이날 드래건을 실은 우주발사체 '팰컨9'이 마침내 굉음을 울리며 솟아올랐다. 승무원들은 이글루 모양의 폭 약 4m 크기의 드래건 캡슐 안에 탑승했다. 팰컨9은 지구 중력을 벗어나기 시작하자 엄청난 속도로 떠올랐다. 약 2분 30초 후 팰컨9의 하단 1단계 로켓이 연료 소모 후 상단의 2단계 로켓과 분리됐다. 이후 2단계 로켓은 우주캡슐 드래건을 우주로 밀어내며 '궤도 속도'인 약 시속 2만7358km에 도달했다. 목표 속도에 다다르자 드래건은 팰컨9에서 떨어져나와 탑재된 자체 추진기를 이용해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드래건이 지구 궤도에 진입하자 지상 관제팀은 승무원들에게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용기가 미래의 탐험가들에게 길을 밝혀준다는 것을 기억하라”며 “우리는 당신의 기술, 용기, 앞으로의 임무를 수행할 팀워크를 믿는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드론 140여대 동원해 모스크바 등 공격...1명 사망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등 러시아 서부를 향해 드론 공격을 감행해 최소 1명이 사망했다. 모스크바 일대 주요 공항과 도로 등도 일시적으로 통제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는 140대 이상의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모스크바 일대 등을 공격했다. 러시아 국방

부는 모스크바 지역에서 최소 20대의 드론을 파괴했으며 다른 8개 지역에서 124대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공격으로 인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라멘스코에 지역에서 46세 여성 1명이 사망했으며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아파트 건물도 최소 두 동이 파손됐다. 40명 이상의 주민은 임시 대피소로 이동한 상태다. 드론이 격추되며 시 외곽 민간 가옥들에 파편이 추락하기도 했다.

"2040년이면 돌로미티산맥 빙하 소멸" ... 기후변화의 경고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산맥 최고봉의 빙하가 16년 안에 소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9일(현지시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환경단체 레감비엔테와 알프스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인 지프라, 이탈리아 빙하 위원회는 최근 돌로미티산맥 빙하 유실 속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돌로미티산맥에서 가장 높은 마르몰라다산 빙하의 두께는 하루 평균 7~10cm씩 줄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난 5년간 사라진 빙하 면적만 70ha에 달한다. 추구장 98계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넓이다. 이 같은 속도로 빙하가 녹아내리면 16년 뒤인 2040년에는 마르몰라다산의 빙하가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추정된다.

마르몰라다산은 오스트리아와 접한 트렌티노-알토 아디제 자치주에 걸쳐 있는 산이다. 높이만 3343m에 달하는 돌로미티 최고봉으로, 한 여름에도 정상 주변을 덮은 만년설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산은 19세기부터 빙하 규모 축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후 변화 속도를 감지하는 '자연 온도계'로 불리기도 한다.

세 단계 전문가들은 “1888년 과학적 측정이 시작된 이래 빙하의 경계면이 1200m나 후퇴했다”며 “마르몰라다산 빙하는 돌이킬 수 없는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폭우에 쑥, 폭염에 바싹... 美서부 태운 화마의 '연료'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빠르게 번진 산불로 1만1000명 이상의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고온과 습도 20~30%



수준으로 건조한 대기에서 불과 사흘간 불에 탄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15배를 넘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통제되지 않는 산불로 수천채의 주택과 사업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 1만1000명 이상의 주민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다”며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동쪽으로 113km 떨어진 하일랜드에 재가 떨어졌고, 연기는 산을 뒤덮었다”고 보도했다. 산불은 지난 5일 LA 동쪽 샌버너디노카운티 산지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날 하루 동안 여의도 면적(4.5km)의 2배인 9km가 불에 탔다. 불과 사흘 만에 피해 면적은 여의도의 15배 이상인 68.8km로 집계됐다.

주 소방국과 샌버너디노카운티 보안관실은 “

기온이 화씨 100도(섭씨 37.8도)를 넘는데, 조목은 건조해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NYT는 전했다. 웨더닷컴은 9일 캘리포니아의 낮 최고기온을 섭씨 41.1도, 습도를 26%로 전망했다.

주 소방국은 600명의 소방관을 투입했지만 진화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불길의 방향이 불규칙하고, 불을 끄는데 부족한 비가 천둥·번개만 동반하면서 항공진화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탓이다. 소방관 3명은 진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

학계에서는 폭우와 폭염을 반복하는 미국 서부의 이상 기후가 산불을 키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캘리포니아대 LA 캠퍼스(UCLA) 지리학과와 글렌 맥도널드 교수는 NYT에 “최근 2년간의 폭우가 풀과 나무의 성장을 촉진했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이 폭염으로 말라버렸고, 산불을 키운 양면적인 연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소셜미디어 사용 연령 제한 추진... "14~16세 고려 중"

호주 정부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에 연령 제한을 설정한다. 10일 가디언,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향후 9개월 이내에 예정된 다음 선거 전까지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법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소셜미디어 사용 연령의 상한선으로 14~16세를 고려하고 있다며 “어떤 정부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어린이를 보호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호주 정부가 로버트 프렌치 전 고등법원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는 14~15세 아동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소셜미디어 기업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어린이가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이 보고서를 의뢰한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남호주 주총리는 연방정부의 입법을 지지하며 “증거에 따르면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조기 액세스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이것은 담배나 술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호주 야당 역시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을 지지하고 있어 법률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인 피터 더튼 호주 자유당 대표는 소셜미디어 접촉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후 100일 이내에 연령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6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호주의 68%가 소셜미디어의 연령 제한을 지지했으며, 반대하는 사람은 15%에 불과했다. 2022년 5월 집권한 호주의 노동당 정부는 온라인 유해 콘텐츠 단속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시행했다. 올 상반기에는 시드니에서 발생한 테러 영상을 삭제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액세스를 법정에 세우기도 했다. 현지 언론은 호주에서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법이 통과되면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개혁신의 윤리학(1)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지난 호까지 '개혁신의 입장에서 현대신학비판'의 글을 연재 해 주신 이길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호부터 '개혁신의 윤리학'을 새롭게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I. 서론

앞으로 개혁신의 윤리학을 논하면서 다음의 책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다양한 개혁신의 신학자들의 글들을 참고 한다. (John Murray, Principles of Conduct.; Wayne Grudem, Christian Ethics: An Introduction to Biblical Moral Reasoning.; Herman Bavinck, Reformed Ethics: The Duties of the Christian Life; David Jones, Biblical Christian Ethics; John Frame, The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A Theology of Lordship))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요 17:11-19). 특히 21세기 과학과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기독교 윤리학이다.

"윤리" (ethics) 라는 말은 헬라어 ἠθικός 혹은 ἠθικός에서 왔다. 이는 관습이나 습관을 의미하며, 때로는 법으로 규정된 관행을 의미하기도 한다. 성도들의 믿음은 반드시 그 행실에서 믿음에 일치하는 생활 방식 (manner of life) 과 행동 양식 (pattern of conduct) 들이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신약에서 더욱 자주 표현되는 용어는 "윤리" (ἠθικός 혹은 ἠθικός) 라는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 ἀναστροφή인데, 이 단어는 생활 방식이나 행동 양식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기에 더욱 적합하다.

약 3:13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 (καλῆς ἀναστροφῆς, good conduct) 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운우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변역 3:2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ἀγνήν) '행실' (ἀναστροφήν) 을 보이라."

기독교 신앙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선행" (ἀναστροφή Καλή) 또는 "정결한 행실" (ἀναστροφήν ἀγαθήν,

혹은 αἷθια) 이다. 즉, 기독교 신앙에서 나타나는 삶의 방식은 선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의 삶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윤리이다.

존 프레임 (John Frame) 에 따르면 기독교 윤리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거나 혹은 인정 하시지 아니하는 행동과 태도, 그리고 개인적인 성품의 특성은 무엇인가? 에 대한 대답이다." (what does the whole Bible teach us about which acts, attitudes, and personal character trait receive God's approval, and which do not?) (John M. Frame, The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A Theology of Lordship, P&R, p.10).

개혁신의 윤리학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God-centered) 이며 성경 중심이다 (Bible-centered).

II. 세속 윤리학 혹은 일반 윤리학

A. 의무론적 윤리학 (Deontological Ethics)

의무론적인 윤리학은 비결과주의이다. 의무론은 개인 행동의 결과 (the consequences of individual actions) 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결과의 좋고 나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종류나 행위자의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떤 행위가 의무나 혹은 도덕법칙과 일치하면 옳은 일이며, 위반되면 그르다.

의무론은 명확한 규범에 따라 (according to a clear set of rules) 행동이 좋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윤리의 이론이며, 행동의 결과와 관계없이 규범의 원리와 동기가 정당하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임마누엘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의 개념은 인간이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법칙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the ability to reason and understand universal moral laws) 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지 말것,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것과 같은 법칙이다. 이

러한 도덕적인 의무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칙이라는 뜻이다. 칸트 윤리학의 기본 사상은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법칙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이다.

의무론적 윤리가 인간의 이성과 직관 에 기초하면 비성경적인 세속적인 이론이지만, 그러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이라고 규정하는 규범이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적인 윤리가 된다.

B. 목적론적 윤리학 (Teleological Ethics)

목적론적 윤리학은 결과주의이다. 목적론(Teleology) 이라는 말은 두 개의 그리스어 단어, 즉 목적을 의미하는 텔로스(telos)와 논리를 의미하는 로고스



(logos)에서 유래한다.

목적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를 검토하여 행위의 옳음과 나쁨을 결정한다. 목적론적 윤리학의 기초는 어떤 행동의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있다.

목적론적 윤리의 가장 일반적인 예는 공리주의 (Utilitarianism) 이다. 공리주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최대의 선을 가져다주면 (the greatest good for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그 행동은 옳다고 주장한다. 현대 대부분

의 정치적인 이슈는 이 공리주의 사상에 근거한다.

목적론의 다른 한 이론은 윤리적 이기주의인데 (ethical egoism), 개인의 행동의 옳바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선이라는 이론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마 22:39) 가르침과 명확하게 반대된다.

개혁신의 윤리는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성경은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함에 있음을 가르친다 (마 22:37-39).

C. 상대주의(相對主義) 윤리학 (Relativism)

상대주의 윤리학은 경험과 문화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가치 판단 또는 진실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모든 가치의 절대적 타당성의 존재를 부인하고,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라는 입장이다. 맞고 틀림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환경 상대주의" (cultural relativism)가 있으며,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다는 "개인 상대주의" (individual relativism)가 있다. 이들의 주장은 "당신에게 옳은 것은 당신에게도 옳고, 나에게 옳은 것은 나에게도 옳다" (What's right for you is right for me, and what's right for me is right for me) 라는 말이다.

에 종속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상대적인 윤리학은 상황 윤리학 (situation ethics)으로도 나타나 큰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고 틀린 행동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항상 각자의 환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the most loving thing)을 위하면 된다.

성경은 사람의 행동이 옳고 틀림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규범이 있다고 가르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상대적 윤리학은 비성경적이며, 비기독교적인 이론이다.

D. 덕 윤리학 (德倫理學 /Virtue Ethics)

덕 윤리 이론은 특정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여부가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성품을 강조한다. 덕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그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인지 여부이다.

이 이론의 기원은 적어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 거슬러 올라간다. 행위자의 품성과 덕성을 중요시 여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윤리를 두 가지 덕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교유를 통해 형성되는 실천적 지성적 덕과 반복과 습관을 통해 형성되는 품성적 덕이다. 특히 품성적 덕에 있어서 '중용'을 강조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은 가운데를 정하는 산술적인 평균은 아니다. 여러 도덕성과 인성 등을 고려하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합당한 값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의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성품을 중요하게 확인한다. 이 경우에는 덕 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

이 모든 세속적 (일반적)인 윤리학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직관, 인간의 경험과 관습, 그리고 인간의 느낌과 정서에 기초하기 때문에 기독교 개혁신의 윤리학과 근본이 다르다. 개혁신의 윤리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 또한 인간의 직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에 근거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5-17).

"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소요리 문답 2,3 & 장로 교 12 신조 #1).

KHL0206@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안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평상)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98, www.lbcpc.com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결혼이혼예배: 오후 2:00 영양예배(잠소:KDC, 킹덤리폼센터) 7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 (310)719-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310)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pccls.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영양예배: 오전 9:00, 11:00 임야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 (949)854-4010 / bible@bdc.org / www.bdc.org 18700 Hanover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매일 저녁 평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927 / www.wmcls.org / worldmissionchurch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8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Fe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 Tel: (310)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합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9:45 (분당)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결신도 여성 리더 3. 약: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세미나 3. 알콜사역 4. 네트워킹 사역 Tel: (213)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영양예배: 오후 7:30 24시간 온/오프라인 상담: 365일 24시간 온/오프 Tel: (714)446-6202, www.graecm.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경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o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양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수요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samsungchur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 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p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금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교과: 오후 1:00 TEE-동요문선(주일): 오전 9:30 화요 3.3기도회: 매일 새벽 오전 9: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TEE-성경을 한눈에(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Tel: 213-383-9136, pyongsangcho@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신앙칼럼

천국의 소망 (Hope of Heaven)

차용호 목사 (센터빌한인장로교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참 소망은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늘의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과 몸이 건강해집니다. 예일대학교 역사 신학 교수 슬라브 펠리칸(Pelikan) 박사가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

한국교회의 무디라고 불리던 이성봉 목사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선배들의 천국의 소망 (Hope of Heaven from Believers in the Bible)

둘째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님들이 모두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낮이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육체와 세상 일에 집착하려는 성향과 영혼과 하늘 일에 집착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개인의 영혼관리

우리 교회에서 지난 5월에 성경 공부에 참석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여러 질문 중 신앙 생활할 지가 얼마나 되었고 성경은 몇 번 읽었는지는 질문이 있었다.

우리 부부는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고 힘을 얻었다. 18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

그때 하나님은 매일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을 통해 순종하면 축복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며 격려해 주셨다. 지난 18년의 시간을 반추해 보면 두렵고 불안했던 순간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큰 힘이 되었다.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우리의 재능과 지능,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교회적인 상황 그리고 특별한 어떤 기회들이 아니다.

이 삶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매일의 습관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의 습관을 지니듯이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습관을 지녀야 한다.

사십여 년 신앙생활을 하며 터득한 영혼 관리의 비법은 말씀을 읽을 때 혼자 읽지 말고 함께 하시기를 기다린다는 기도를 짧게 드린 뒤 성경을 정독하며 묵상해 보라.

yanghur@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Includes 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and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Lists various churches with contact info and photos of pastors.

목자의 마음



김제이 목사 (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

“감사하며 살아가요”

세상에는 감사할 일이 많습니...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가족을 보지 못하고...

입니다. 그는 히말라야산맥 아래...

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고, 결...

위해 속성으로 한국 단어들을...

내 환경을 돌아보면 참으로 감...

drjeekim@gmail.com

이런 과거를 가족을 위해 한국...



샌디에고교협 부흥회에서 김우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샌디에고교협 주최 부흥회 열려

“율법의 렌즈가 아닌 관계의 렌즈로 성경 읽어야”

샌디에고교회협의회 주최 부...

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것은 기도의 본질인 하나님과...



타코마제일교회 가을부흥회에서 정승룡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타코마제일교회 가을부흥회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적인 역사 일어나”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송...

양대의 찬양이 있었다.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셋째는...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당신은 iPhone에서 “I”를 ...

(1면에서 계속)

고등학교 마지막 해에 나는 마...

다. 하지만 luk3simon이 룩 사이...

디지털 디톡스

이 무렵, 나는 C. S. 루이스의...

한할 것.

쉽지 않은 일이었다. 칠 년 동...

온전한 귀가

결국, 나는 다시 휴대폰으로...

재발을 피하기 위해, 나는 휴...

지금까지 이야기는 디지털 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마...

by Luke Wilson, TGC

원 보이스 북가주 베이지역과 해외 21개국 어린이 전도

원 보이스 (One Voice, 대표...

린이들을 위한 50개 이상의 온...

스타키즈 사역을 시작했다. 스타...

(정리: 박준호 기자)



원 보이스의 스타키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서니베이지역 어린이들 (사진 One Voice)

동부교계 기사관

KAPC 뉴욕노회 제95회 정기노회 개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가지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노회장 임영건 목사) 제95회 정기 노회가 9월 10일(화) 오전 10시에 새사람교회(담임 이종원 목사)에서 열렸다. 개회예배는 인도 임영건 목사(노회장), 기도 부서기 박병섭 목사, 성경봉독 허장길 목사(담대한국회), 설교 임영건 목사, 성찬예식 부노회장 정기태 목사, 광고 서기 정인수 목사, 축도 전노회장 임병순 목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노회장 임영건 목사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누가복음 17:1-10)”이라는



뉴욕노회 제95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제목으로 한 설교에서 “예수님

께서 실족케 하는 자가 연자 뱃물에 매여 죽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목회 가운데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베드로도 그 작은 믿음이 없어서 실패 했듯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역이 되자”고 설교 했다.

노회장 임영건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무처리를 통해 ▲제48회 총회 결의안 제6편 5조 2항(유아세례와 어린이 세례) 헌법 수정 안건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이오스틴 씨 목사 후보생 고시 청원 ▲예사랑교회(담임 손한권 목사) 김태형 장로 고시 청원 및 교회 이전허락 청원 ▲뉴욕심포니교회(담임 신동기 목사) 장로 1명 증택 청원 ▲총회 헌법 영문 오류 수정 요청 현의 ▲동성애법(차별금지법 포함) 문제 예방을 위한 총회 헌법, 규칙 명시 현의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재상 기자)

제95회 KAPC 뉴욕동노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동노회(회장 허민수 목사)는 9월 17일(화) 오전 10시 주사랑장로교회(시무 최성현 목사)에서 정기노회를 개최하며, 오전 11시 30분 흥아담 전도사 목사 안수식을 진행한다.

▲ 문의: 201-944-6747 / 718-229-8855

새생명선교회, 20주년 감사음악회

새생명선교회(대표 심의례 전도사)는 암환자를 위한 모임 20주년을 맞이하여 9월 22일(주일)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상철 목사)에서 감사음악회를 개최한다.

▲ 문의: 718-445-3182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동권 목사)는 9월 20일(금)부터 9월 22일(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금, 토)과 오후 5시(주일) 한무리교회(박상돈 목사 시무)에서 뮤지컬 배우 선우를 초청하여 호산나 전도대회를 개최한다.

▲ 문의: 이준규 목사(교협총무) 917-348-4456

영생장로교회, 교육위원회 주최 세미나

영생장로교회(담임 정승환 목사)는 ‘21세기의 영적 전쟁 - 다음 세대를 지키라’라는 주제로 김태오 목사와 김세라 사모(다음 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9월 20일(금) 저녁 8시, 21일(토) 저녁 7시, 22일(주일) 오후 2시에 제1예배당에서 교육위원회 주최 세미나를 개최한다.

▲ 문의: 심수목 장로 267-577-7007

워싱턴 메시아장로교회, 설립 35주년 메시아잔치를 위한 부흥회

워싱턴 메시아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최요한 목사(담서울 비전교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9월 20일(금)부터 22일(주일)까지 설립 35주년 메시아잔치를 위한 부흥회를 개최한다.

▲ 문의: 703-941-4447

덴버한인장로교회, 한글학교 2024 가을학기 학생 모집

덴버한인장로교회(담임 이형만 목사)는 10월 6일(주일)부터 12월 8일(주일)까지 매주 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3세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무료로 한글학교를 운영한다.

▲ 문의: 303-422-6950 / 720-591-4651

월그린, 무료 독감 예방접종

월그린(Walgreens)은 9월 14일(토) 오전 7시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시무) 지하 친교실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보험 소유자는 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 문의: 718-886-4040

뉴욕장로교회, 설립 54주년 감사 연합예배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9월 15일(주일) 오전 10시에 온 가족이 연합하여 설립 5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다.

▲ 문의: 718-706-0100



개강부흥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024년 가을학기 개강부흥회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는 2024년 가을학기 개강부흥회를 영생장로교회 담임 정승환 목사를 강사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9월 3일(화)~5일(목) 저녁 8시퀸즈장로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첫째 날 개강예배가 신학생들로 구성된 경배와 찬양 팀의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됐다.

강사 정승환 목사는 “소명의 사람(창세기 28:10-22)”을 제목으로 한 설교에서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며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우리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늘 문을 두드려 응답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자”고 설교했다. 학장 정기태 목사의 광고 후 총무처장 이종원 목사의 축도로 첫째 날 저녁 집회를 마쳤다.

둘째 날 저녁, 퀸즈장로교회 1일 부흥회와 함께 드려진 개강 예배에서 정 목사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창세기 22:1-14)”을 제목으로 설교했

다. 정 목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맹하신 대로 아들이삭을 데리고 믿음으로 산에 올랐을 때 희생 제물을 준비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 신학생들도 부르심을 따라 마침내 산 정상에 올랐을 때 만나게 될 것은 세상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찬양 후 학장 김성국 목사의 축도로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마쳤다.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서 정 목사는 “위로, 소망, 평강의 사람(로마서 15:5-7, 15:13, 15:33)”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목사는 “소망이 없으면 마음이 공허해진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된다. 그 충만함을 받으려면 믿음의 통로를 거쳐야 한다. 위로와 소망과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전했다. 정승환 목사의 축도로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 개강 부흥회 모든 일정을 마쳤다. (김재상 기자)

제2회 뉴욕라이트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베이스айд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2회 뉴욕 라이트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를 9월 10일(화)부터 9월 13일(목)까지 본 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유럽에서 12명, 남미에서 4명, 미국에서 23명, 그리고 북미(캐나다)에서 1명이 참석했다.

김태식 목사의 찬양인도와 정도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 된 개강예배는 기도 이병욱 장로, 설교 이종식 목사, 오리엔테이션 김주수야 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식 목사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이사야 6:1-8)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모세, 아모스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장소가 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부심과 소명

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역할 수 있다. 이 자리를 통해 그 부르심과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설교에 이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잃어버렸던 소명감을 회복하고 목회의 열매를 맺기 위해 통성기도 한 후, 베이스айд장로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한 영상을 상영하고 모든 순서를 마쳤다.

뉴욕라이트는 이종식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뉴욕도성에 발하고자 시작한 무브먼트이다. 이 운동을 통해 많은 일을 담당해 오던 중, 목회자 세미나도 진행하며 ‘뉴욕라이트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라고 명명했다. (홍현숙 기자)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설립 20주년 기념 연례기도회 후 사진 촬영 했다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설립 20주년 기념 연례기도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더 강하다”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회장 손성대 장로) 설립 20주년 기념 연례기도회가 ‘회개와 회복(역대하 7:14)’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9월 7일(토) 오전 8시 디모스 연회장에서 열렸다.

손성대 장로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창을 위해 기도한다”며 “악한 세력과 담대히 맞서 기도하며, 정의와 진리를 위해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나라와 민족, 조국, 미국, 세계평화를 위해, 그리고 차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조동현 장로(준비위원장)의 개회선언 후 드린 1부 예배는 사회 김태수 목사(부회장, 세기총 마동복부 회장), 대표기도 양민석 목사(전 교협회장, 뉴욕그레이트레이크교회), 성경봉독 유성로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 개강 부흥회 모든 일정을 마쳤다. (김재상 기자)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전 특별기도는 기도제목에 따라 노기송 목사(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뉴욕지회장), 송윤섭 장로(뉴욕장로성가단), 황규복 장로(뉴욕장로연합회장), 황창엽(KEB 하나은행 전 회장), 박우신 목사(프라미스교회)가 각각 인도했다. 이어 방연직 목사(맨해튼 코너스톤장로교회)가 헌금 기도를 드린 뒤 장철우 목사(뉴욕한인교회 원로)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명석 회장(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부이사장)의 사회로 시작한 2부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는 강현석 명예회장의 환영사 및 20주년 회고와 미래 비전을 전했다. 방지각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설립 회고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뉴저지한인교회회장 김동권 목사의 영상 축사와 김의환 총영사(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김광석 회장(뉴욕한인회장), 박태규 목사(뉴욕교협회장), 정관호 목사(뉴욕목회회)가 축사했다.

New York State senator에서는 회장 손성대 장로와 지회 설립자 강현석 장로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또한 손성대 장로는 차세대위원장 및 위원 황창엽, 정훈, 유성용, 정현욱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정훈 간사(전 준비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학권 목사의 에찬을 위한 기도를 한 후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제2회 뉴욕라이트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 개강예배 후 사진 촬영 했다

피종진목사 9월 2024년 국내외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제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영어연구회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 (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 (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주) 오전 논산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군총 강우일 중령)

제 241차 해외성회 (241th Overseas Assembly)

2(월)~3(화) 일본(JAPAN) 東京神學校 (Tokyo Theological Seminary) 학장 정성대 목사, 대학원장 피종진 목사

4(수) 일본(JAPAN) 동경 사랑의교회(정성대 목사)

5(목) 일본(JAPAN) 동경 우에노공원 야외대중전도집회 동경 우에노 사랑의교회(김태실 목사)

6(금) 오전 강남금식기도원(원장 최동민 목사, 교무부장 김진성 목사) 010-3790-2462
주최: 월드비전부흥협의회(대표회장 허은혜 목사) 010-3028-1545

7(토) 오전 Blessing Association MT

9(월) 서울국제예술선교회(김재영 목사) 010-6713-0388 천보산 임영욱 목사

9(월) 저녁 대구 북구제일교회(이재우 목사) 010-6698-3071
주최: 그루터기선교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정재운 목사)

10(화) 오전·후 청평 강남금식기도원(원장 최동민 목사, 교무부장 김진성 목사) 010-3790-2462

12(목) 오후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옐로힘선교단(대표회장 양유식 목사) 010-8839-8899

15(주) 저녁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16(월)~18(수) 포항 브니엘교회(박민정 목사) 010-3739-4442

19(목) 오전·후 서울 축복교회(김보배 목사) 010-2971-1479

20(금) 오후 국제학술원(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23(월) 서울 강남임마누엘교회(노영애 목사) 010-2236-9182

24(화)~25(수) 충주 다메섹기도원(원장 이승우 목사) 010-9229-9859

26(목) 오전 아산 첫사랑회복센터(김안나 목사) 010-5301-8220

27(금) 저녁 인천 은혜교회(한명희 목사) 010-7370-9191

28(토) 오전 Miracle(미라클) 국제선교센터 (대표교인 피종진 목사, 총재 조예환 목사, 대표회장 김수아 목사) 010-9082-9030

30(월) 오전 인천 주사랑열방구국기도원(백사량 목사) 010-2272-9119

30(월) 오후 송추 반석교회(괴연성 목사) 010-2391-3004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www.nsc.a.or.kr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JMS 성폭행 폭로 PD는 무혐의” 교계, 탄원서 제출

3036명 시민이 작성한 탄원서 제출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씨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담당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감리교이단피해예방센터(센터장 차재용 목사)가 무혐의 처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차재용 감리교이단피해예방센터장은 10일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차 센터장은 “경찰은 ‘나는 신이다’에 삽입된 일명 ‘보고자 동영상’을 이유로 조성현 PD에게 N번방

조주빈과 똑같은 성폭력 특별법 14조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는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매우 반하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나는 신이다’ 담당 조성현 PD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공익과 비교했을 때 침해당하는 사익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감리교이단피해예방센터 측은 3036명의 시민이 작성한 탄원서를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차 센터장은 “JMS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소송’에

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나는 신이다’ 1,2,3 편의 모든 영상을 사전에 시청하고 방영을 허가했다. 공익성도 인정받았다”며 “유사 사건에 대해 2018년 수원지검이 불송치, 2021년 일산동부경찰서가 무혐의 처분을 한 선례도 있다. 또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동일한 동영상의 게시를 두고 공익을 위함이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 정씨를 성범죄의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 흥풍과 호주 피해자 두 명뿐이었지만 방영 이후 20 여명의 피해자들이 추가로 나서서 정명석을 고소했다”면서 “JMS 신도 가운데 절반 가까운 사람이 탈퇴해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차 센터장은 “재판부의 유죄판결마저 받은 사이비종교 JMS와 같은 거악을 상대한 희생의 결과가 법적 처벌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이런 사회적 문제와 맞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것은 우리 사회의 크나큰 손실로 다가올 것이고, 그 피해는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JMS는 성경 해석과 구원관 등에서 반기독교적 등의 이유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한국YMCA 창립 110주년 기념식 현장

일제 과거사 사죄·반전(反戰)...

한국YMCA전국연맹(한국YMCA-이사장 신관우, 사무총장 김경민)이 10일 창립 110주년을 맞아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가치를 내걸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전쟁,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서 기독교 가치관에 따른 생명존중과 평화의 시대를 새롭게 재편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특히 이날 열린 창립 기념식에서 일본YMCA는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을 지지했던 과거사를 사죄했다.

전국 64개 지역 YMCA로 조직된 한국YMCA는 이날 서울 시청 다목적홀에서 창립 11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한국YMCA는 이날 비전선언문을 발표하고 ‘회심하여 정의로운 전환으로(막 1:15)’라는 창립 110주년 비전에 따라 평화, 기

후 정의, 생명경제와 민중 복지, AI 시대의 디지털 정의, 새로운 문화 창조와 교육 과정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독교 가치관에 따른 시민사회 운동을 이어나갈 것을 천명했다.

신관우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한국YMCA는 질고의 역사 가운데 청년 예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민족의 독립과 해방, 한국전쟁은 물론 군사독재의 시기와 민주화 운동의 열망을 드높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어진 소명과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며 “우리는 지금 개혁주의 삼정으로 선배들이 이뤄온 성과를 기억함은 물론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있다”고 말했다.

창립 기념식에서는 과거사 회개와 반전(反戰) 메시지도 들

을 수 있었다. 일본YMCA연맹 이사장인 야마모토 도시마사목사는 이날 기념식 축사에 나서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YMCA가 식민지 정책을 승인하고 지지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개한다”고 전했다. 그는 “1913년 일본 식민지 통치하에서 한국YMCA를 일본YMCA에 귀속시키려 한 사실이 있고 이를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YMCA연맹은 이사회 등 현지 지도자 일동명의 축사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연대할 뜻을 전했다. 특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새로운 YMCA를 설립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우선순위로 추진해 한·러 YMCA 간의 새로운 연결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은 이러한 내용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YMCA 평양연락사무소 설치, 세종시에 2025년 3월 착공 예정인 한국YMCA 생명평화교육원 건립 등 15가지 창립 11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념식 1부 예배에서는 양희창 빈들교회 목사가 설교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신첸중국YMCA연맹 이사장 등이 현장에서 직접 축사했고, 소혜일라 헤이예 세계YMCA연맹 이사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등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법원 “거리두기 교회예배 금지는 종교자유 제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교회가 아닌 법원이 직접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을 받겠다는 사안이기에 이목이 집중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승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직권으로 심판을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쟁점이 될 법률 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이다.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는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사건의 A목사는 2020년 8월 23일 교회에서 50여명의 교인과 함께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 2020년 9월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면 예배를 실시해 고양시장의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됐다. 법원은 이 같은 처벌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이 판사는 지난 2일 제청 결정문에서 “예배 등의 종교의식을 거행한 것이 위헌행위라면 행정 질서법(과태료)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감염병예방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면서 “위헌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일괄적으로 단정해 예의 없이 행정행위를 부과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 활동의 자유 가운데 예배 등의 종교의식은 신앙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뿐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한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인들이 예배에서 성찬식을 공동으로 치르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그에 대한 제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판사는 “대면 예배의 금지는 비종교인의 입장에서 그 무게를 실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종교인의 입장에서 핵심적인 종교의식인 예배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이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전까지 진행이 중지된다. 앞서 현재는 지난 6월 27일 방역당국이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종교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게 하라” ...

카이퍼 목사 신앙정신 되새긴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게 하라.”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아브라함 카이퍼(1837~1920) 목사의 외침이 서울 한복판에서 재현됐다. 8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는 ‘아브라함 카이퍼 전시회 개관식’(사진)을 진행했다. 압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설립했으며 기독교 위대교회 세운 카이

퍼는 개혁주의 신학에 일반은 총을 도입한 칼뱅주의 신학자다.

전시회에는 네덜란드의 노르트홀란드 아브라함 카이퍼 헤리티지 센터가 제공한 전시물과 코르 판 허위컬럼 네덜란드 베이스트교회 장로가 전달한 ‘카이퍼 목회 150주년 기념 전시회 사진 자료’ 70여점이 선보였다. 베이스트교회는 카이퍼

목사의 첫 목회지였다. 전시회의 주제는 ‘카이퍼 스트리트’로 관람객들은 전시회를 걸으면서 곳곳에서 카이퍼가 남긴 신앙 정신을 되새길 수 있다.

이날 개관식에 참여한 안 페테르 발케넨더 전 네덜란드 총리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점차 잊히는 시대에 그의 정신을 기리는 전시회가 한국에 생겼는데 이곳을 통해 그의 사상이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시회를 계기로 양국의 유대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페이테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대사는 “이곳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역과 철학을 널리 알리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전했다.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영역 주관인데 21세기 영적 성공을 이루려면 그의 사상을 계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운대성령대집회, 평양대부흥 그날처럼...

10만명의 영적 파도 백사장에 몰아치다

8일 오후 700여m에 이르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찬양곡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퍼렇게 울려 퍼졌다. 백사장엔 흰색 빨간색 남색 초록색 등 형형색색의 옷을 맞춰 입은 성도들로 빼곡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 넘어 서거전 진행된 ‘2024 해운대성령대집회’(대회장 이규현 수영로교회 목사)가 빚어낸 광경이

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부성분·이사장 이규현 목사, 본부장 박남규 목사)가 주최한 집회는 총 10만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부산지역 1800여교회를 비롯해 울산과 경남 등 전국 33개 지역 교계가 동참했다. 부산 교계의 해운대 집회가 열린 건 꼭 10년 만이다. 2014년 5월 25일 같은 곳에서 열린 ‘2014년 해운대성령대집회 525 회개의 날’이 재현된 것이

다. 당시 폭우가 쏟아졌고 올해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나라와 한국교회를 향한 기도의 열기만큼은 변함없었다. 집회에서는 이찬수(분당우리교회) 류정길(제수성안교회) 목사가 설교자로 나서 각각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메시지를 선포하며 회개와 믿음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 목사는 “회개는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그럼에도 행위적인 열심은 계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언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었는지 깨닫고 십자가 감격을 회복하자”고 권면했다. 류목사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부모가 되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자녀들의 믿음도 회복될 것”이라며 “영적 어둠의 사사 시대를 끝낸 사무엘처럼 다음세대를 일으키자”고 힘주어 말했다.

해운대성령대집회는 ‘평양대부흥 100주년’이었던 2007년 ‘해운대부흥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던 집회가 시발점이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한국교회의 대표적 부흥운동인 ‘평양대부흥’처럼 한국교회의 회개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과 복음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공교회성을 공고히 하면서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와 영향력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축된 한국사회와 교회를 다시 일깨우자는 각오를 담아 ‘9·8 해운대 선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교회와 민족의 죄악을 깊이 회개하며, 진정한 변화와 부흥만이 유일한 회복임을 천명한다”면서 “해운대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대한민국,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선포했다.

미주 크리스천신문 구독문의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213)674-7982,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선교의 창 (245)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삼 겹줄 동역이 필요한 한인 선교사회

금년 8월 9일 밤에 한 사건이 발생했다. K국에서 모 선교사와 그 장모님이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된 것이다. 벌써 1달째가 되었지만 생사조차 알 수가 없다. 그분들의 친가족과 파송교회는 얼마나 애가 탈까? 현재 두 분의 생환을 위해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있다. 이처럼 선교사는 영적 최전선에 있기에 사탄의 공격을 받기 일쑤다(벤전 5:8). 선교는 실시간 전개되는 진행형이다. 그에 따른 문제들도 동시적이다. 위기는 예측

이룰 수 있을까?

하나의 몸이 머리가 둘인 갓난아기

탈무드에는 “머리는 둘, 몸은 하나”인 갓난아기 이야기가 나온다. 저들의 관습은 생후 1개월째 회당에서 아기를 축복해주는 의식이 있다. 이때 축복을 두 번 해야 하는가, 한 번만 해도 되는가? 답은 이렇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본다. 당연히 해당된 머리 쪽에서는

로서 고통스러워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혈통적 유대인이란 할지라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몸체 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연합의 가치와 방해원인

이인동심 기리단금 동심지언 기취여란(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이라. 이 문구는 중국의 역경(易經) 또는 주역(周易)이라 일컫는 책에 쓰

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동역을 잘하지 못할까? 이에 대한 답을 중화권 선교의 대부 격이신 고(故) 토마스 왕(王永信)목사가 명쾌하게 지적하였다. 한마디로 주도권 쟁탈전 때문이란. 그는 “누가 우리 교단의 중심인가 (Who is central in our denomination)? 누가 우리 선교사회에서 중심인가 (Who is central in our missionary community)? 지난 2천년의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와 교단이 헤게모니(Hegemony) 때문에 수많은 싸움과 분열되었다. 이는 사탄의 까불림에 놀아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개미들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

이 지구상에는 약 12,000-14,000여 종의 개미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미는 크게 일개미와 병정개미, 수개미와 여왕개미로 분류할 수 있다. 일개미는 알이나 애벌레나 번데기를 돌보는 일을 한다. 병정개미는 몸집이 큰 개미로 적을 방어하거나 먹이를 잘게 부수는 일을 한다. 수개미는 여왕개미와 함께 하늘로 비행하여 하늘에서 여왕개미와 교미하여 여왕개미로 하여금 종족을 번식하게 한

거나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나아가 개미는 팀워크로 연합을 이룬다. 람보처럼 힘센 자가 전체를 휘두르지 않는다. 개미 사회는 철저히 분업화, 전문화, 조직화되어 있다. 하찮은 미물이라고 우리가 우습게보아서는 아니 된다.

한인 선교사회의 동역 방안

하나님께서 3차원의 구도 가운데 전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인간-만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청지기적 직분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장적 직분이 있다. 이로써 우리 인간들은 더욱 겸허하게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고 또한 대자연 속에 운행하는 일반계시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특권에 따른 책임성이 크다. 불행하게도 인류사회는 시초부터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와 사망의 빛에 걸려 있다. 따라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야 한다. 선교지에서 100개의 랜드마크보다 100층짜리 빌딩 하나가 더 빛을 발한다.

맺음 말

선교사는 3각 관계 속에 있다. 후원자나 후원교회, 피선교지의 현지인, 동료 및 선후배 선교사들이다. 이중 선교사를 가장 힘있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현지인이 아니다. 종교 탄압하는 정부 요원도 아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동료 선교사들이다. 우리는 위에서 살펴보았다. 탈무드에 “몸이 하나에 머리가 둘인 아기” 비유를 통해 공동체의 동질성과 유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역경(易經)에서는 “두 사람이 마음이 같으면 그 강함이 무쇠를 자를 수 있고 그 말의 향기가 난초와 같다”고 했다. 하나의 미물인 개미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일의 결과보다 자기 책임을 다하며 동역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선교사회도 이제는 업적지향보다 과정 속에서 연합적 사역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개미의 집이 큰들 사람보기에

삼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가까이 있는 선교사는 경쟁자가 아니라 최고의 동역자이다.
선교사들끼리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세계선교는 소망이 없다.

하기 힘들며 돌발적으로 엄습해온다. 이때 누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곁에 있는 동료 선교사들이다. 선교사는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낯은 것이다. 현대 지금 사역현장에서 선교사들끼리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 좋은 사례도 있지만 대체로 한인 선교사회에는 갈등과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다. 동역은커녕 오히려 곁에 있는 선교사가 사역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한인 세계선교는 터덕거릴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교단과 파송 단체를 초월해 선교사들끼리 삼 겹줄 연합을

비명을 지를 것이다. 동시에 다른 쪽 머리도 고통스러워하면 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으로 보라는 것이다. 현재 유대인 수는 세계 인구의 0.2%인 약 1,570만 명이다. 이들 중 720만 명이 이스라엘 땅에 있고 미국에 570만 명이 있다. 이 밖에 280만 명은 132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Wikipedia 자료). 이 비유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유대 민족은 지난 2천 년간 타 민족과 국가로부터 무지막지한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다. 이로서 유대인들은 저들 나름의 동질성과 연대감을 중요시 해 왔다. 만일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곳 유대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면 당연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동족으

여 있다. 뜻인즉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면 그 날카로움이 쇠를 자를 수 있고, 같은 마음에서 우리나라 말은 그 냄새가 난 초같이 향기롭다.”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한 후 전투현장에서 같이 죽기로 맹세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 그 용맹과 우정은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온다. “한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이처럼 연합, 동역, 협력의 중요성과 시너지 효과는 아무리 강조

후 죽는다. 여왕개미는 알을 낳고 애벌레를 돌보며 일개미를 번식시켜주는 일을 한다(참고: <https://namu.wiki>).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명(잠 6:6-11)한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개미를 얼른 생각하면 “일과 부지런함”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우리는 종종 공원이나 빈 트랙에서 개미떼들이 일렬 종대로 가는 모습들을 목격한다. 개미는 땅속이나 돌, 나무 밑, 나무 안, 빈 줄기, 심지어 도토리 속에 집을 짓는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개미들의 성과물이 아니라 일 방식이다. 개미들의 근면함은 “개미와 베짖이”라는 우화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개미는 말은 소임에 끝까지 책임을 진다. 결코 다른 개미의 영역을 침범하

나라가 확장되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선교사는 첫째 나의 킹덤(Kingdom)이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을 앞세워야 한다. 자기명예나 욕심이 앞서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멈추게 된다. 둘째 옆의 선교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연대의식이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에서 옆의 전우 한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이다. 주변의 선교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셋째 소속한 단체나 선교현장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겠다는 생각과 행동을 버려야 한다. 이는 모든 분란의 씨앗이다. 영적 공동체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넷째 통합적 프로젝트를 세우고 각자 은사와 준비됨을 따라 동역해

하찮은 것이다. 인간의 업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자랑거리가 못 된다. 세계에 나가 있는 한인 선교사들은 현재 174개국에 약 23,000명이 있다. 저들은 사망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기에 예기치 못한 공격을 받기 쉽다. 누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잘 도울 수 있는가? 바로 곁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이다. 지금 같은 어려운 세력에 포로가 되어 떨고 있는 K국 모 선교사와 그 장모님이 생각한다. 이게 남의 일인가? 2만3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마음을 합치면 하늘이 진동할 것이다. 속담이 있다. 한 사람의 100보보다 100사람의 1보가 낫다. 앞으로 한인 선교사회에 삼 겹줄 동역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Jrsong007@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34강 나오미, 롯 그리고 보아스 (3)(롯기 1-4장)

‘소견대로’ 할 것인가 ‘법대로’ 할 것인가

보아스는 모두가 소견에 옳은대로 사는 세상에서(삿 17:6, 21:25) 하나님의 법대로 삽니다. 무법천지 사사 시대에 사라져버린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다(신 10:18, 14:29, 16:11, 14, 24:19-21, 26:12, 13). 그런데 이때가 사사기 중간입니다. 이미 레위인의 첩 사건에서 보았듯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사는 세상에서 지금 젊은 여인이 한밤중에 이불 속으로 들어온 상황을 보아스는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진행을 합니다.

보아스는 먼저 롯에게 “나는 기업을 무를 자이나 기업 무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서 머무라 야침에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야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롯 3:12, 13)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말과 같이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습니다(롯 3:18).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대로 기업 무를 자의 권리를 찾아 기업을 무를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출 4:1-12).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를 지 못하노니

보아스보다 나오미의 친척으로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있었습니다. 비록 롯이 젊은 여인이었지만(롯 3:10) 이방인 과부를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를 지 못하노니”(롯 4:6)라고 합니다. 바로 이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고 세상은 그럴 듯하게 유혹을 하지만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에 대해서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누워쳐 그는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나 네가 당하라”(마 27:3, 4)고 합니다. 그와 같이 법적으로 그 의무를 행해야 할 자가 하

는 말이 ‘내 기업, 내 손해 그리고 나를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는 그 의무를 먼저 가진 자가 아님에도 그 사람의 말대로 손해가 될 것을 알지만 ‘소견대로’가 아닌 ‘법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가 롯을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았습니다(롯 4:13). 그리고 롯기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성경은 보아스와 롯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고 농사를 해서 얼마나 많은 수확이 있었으며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성

경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롯기의 결론은 ‘보아스와 롯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가 아닙니다. 결론은 료의 결론은 세상 이야기 책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바로 ‘그러므로 잘 살았더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므로’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더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롯과 결혼을 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이며 구약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예표로 등장하는 다윗을 낳았습니다(롯 4:21, 22).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고 합니다. 또한 ‘그러즉 너희가 먹

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성공도 실패도 승리도 패배도 모두 사용하시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야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이제 사사기를 마치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a@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믿음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넘어지지 말라 (막 7:24-29) 찬 287장

구원 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은혜다.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주님에게 나오게 부르신 것이다.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다. 주님은 고의적으로 여인이 듣기에 아주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다. 여인의 간절한 구함을 외면하시고 이방인을 무시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신다. 이런 대우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에는 주님에 대한 반감이 일어난다. 그러나 여인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구원을 받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따라간 것이다. 무시당하는 것과 같지만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 믿음대로 딸을 고쳐 주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지키라. 그 믿음의 실상을 반드시 주신다.

화 떡 일곱 개와 생선 두 마리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다 (막 8:1-9) 찬 405장

하나님은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사십년 간 먹이셨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을 내어 씨를 뿌리고 가꾸어 먹는다고 생각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태양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떡을 것과 물을 주신다. 꽃을 보라 날아가는 새를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꾸시고 먹이시는 것이다. 사람은 더욱 더 돌보시고 먹이신다. 이를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우리가 십일조를 드림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마음의 증표다.

수 구원을 받은 자여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심을 찾으라 (막8:18) 찬 366장

구원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길 나의 삶에 은혜로 나타나신다. 예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에게 은혜로 돌보시는 것을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하고 감사하여야 하고 섬기며 높이며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영적 맹인은 주님이 같이 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산다. 삶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다. 빛이신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영적 그늘이 나를 덮고 있다. 그늘이 하나님을 믿는 하는데 확실함이 없는 것이다. 감춰진 보화를 발견함과 같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라. 영적 맹인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빛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믿어진다. 선명하여 진다.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부름 받기 전에 눈을 떠서 복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

목 문제 앞에서 항상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질문 (막 8:27-29) 찬 365장

나의 주인께서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반드시 물으신다.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신다. 육신의 소리들이 들릴 때 이 음성을 듣고 고백하라. 주님 앞에서 고백하라. 육신의 육신이 몰려 올 때 주님의 질문에 고백하라. 외치라. 분노가 일어날 때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음성 앞에 주님에게 고백하라. 아주 중요하다.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고백하는 경향이 우리 구원 받은 자에게 너무나 많다. 주님의 구원으로 매일 매일 사는 사람으로서 문제 앞에서 주님을 버리지 말라. 주님을 무시하지 말라. 주님 앞에서 주님을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가 나를 문제 앞에서 높이 주실 것이다. 베드로처럼 문제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였다. 깨어서 주님 앞에서 살라. (마 26:70,72, 시 108:1-3).

금 고통이 가중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막 8:31-33) 찬 406장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은 육신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다. 나의 주인이 하시는 깊은 뜻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육신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나의 이해를 벗어나서 주인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다.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마귀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

인의 뜻대로 주인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일 하시는 환경이다. 내가 일 하는 곳이 아니다. 주인을 믿으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인의 뜻을 이루시는 시간임을 믿으라.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항상 힘들게 하는 환경이다. 주인의 것이요 주님이 이루실 장소라고 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막 8:34) 찬 43장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은 모시고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주님은 생각으로 나타나시고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 생각을 따라 바라보고 누리고 사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삶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은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인정하고 예배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죄의 생각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내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삶은 구원받지 않는 자도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과 동일하다.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맺는 열매는 들 포도와 같은 것이다. 먼저 주님이 함께 하셔야 구원을 받은 자가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 받은 자의 삶이다.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고 주님의 생각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고 품고 누리고 살아야 한다.

교회음악 이야기(64)



윤임상 목사
윌리엄스대학교대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개신교(Protestant) 관점에서 바라본 레퀴엠(Requiem)에 대한 이해 (3)

“브람스(Johannes Brahms)의 독일 레퀴엠을 중심으로” III

두 번째는 같은 가사를 가지고 곡을 썼지만, 자비로운 하나님은 이를 받아들이며 위로와 평안, 영적 해방이라는 개념에 더 초점을 맞추어 곡을 쓴 작곡들이 있다. 이들은 낭만 후기 작곡가들로서 가브리엘 포레(Gabriel Faure, 1845-1924)의 Requiem in D minor, Op. 48과 모리스 뒤플레(Maurice Durufle, 1902-1986)의 Requiem Op.9를 들 수 있다.

(1) 가브리엘 포레(Gabriel Faure, 1845-1924)의 Requiem in D minor

포레가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가 확실치 않지만 1885년 아버지의 죽음과 2년 후인 1887년 새해 전야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890년 오늘날의 곡으로 완성되었다.

이 곡은 깊은 신앙인을 반영하듯 영성이 물씬 풍기는 선율이 돋보인다. 프랑스의 서정성이 넘치고 화성이나 악기 편성도 교회음악의 전례에 잘 어울리는 예술적 깊은 감동을 준다. 전통적 어두움의 색채를 피기보다 밝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낸 것이 특징이다.

(2) 모리스 뒤플레(Maurice Durufle, 1902-1986)의 Requiem Op.9

뒤플레가 남겨놓은 작품 중 최고의 작품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곡을 썼다. 이 곡은 곡 전체를 그레고리안 선율의 교회 선법을 중심으로 쓰면서 전형적 신고전주의 작곡자 면모를 보여 준다. 극적인 효과를 내는 "진노의 날"(Dies irae)을 생략하고 "인자하신 주 예수여"(Pie Jesu)와 "천국으로"(In paradisum)를 삽입시켜 어두운 느낌이 아닌 평온함을 표현했다.

세 번째는 작곡가가 기존 라틴 가사 이외에 다른 가사를 추가하여 그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벤자민 브리튼(Benjamin Britten, 1913-1976)이 쓴 전쟁 레퀴엠(War Requiem, Op.66)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는 특정한 한 사람의 죽은 영혼을 위로한다기보다 전쟁에서 희생당한 무명의 전사자들을 위로하고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갈망을 갖고 곡을 쓰게 되었다. 보다 근본적인 동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14세기 건축물이 파괴된 후 새로 지어진 코벤트리 대성당(Coventry Cathedral)의 봉헌을 기념하기 위해 위촉된 작품으로 1962년 1월에 작곡이 완성되었고 그해 5월 30일에 초연된 곡이다.

브리튼은 의식화된 라틴어 텍스트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전쟁의 참상을 폭넓게 진술하기 위해 윌프레드 오웬스(Walfred Owen, 1893-1918)의 전쟁 시를 첨가했다. 이를 통해 전형적 라틴 텍스트에 기초를 두고 영어 텍스트를 부분적으로 더하게 되었다.

3) 텍스트에 대한 이해

레퀴엠에 사용된 라틴 텍스트는 일반적 미사 형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여기에 죽은자들을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해 주실 것을 아뢰는 것이 중심이 되어 구체적으로 인간들이 심판의 두려움에서 출발하여 천국의 소망을 꿈꾸게 하는 과정으로 길게 전개되어 있다. 작곡자들은 모든 텍스트를 사용하여 작품을 쓰지 않고 작품의 성격에 따라 부분적으로 텍스트를 빼고 거기에 곡을 붙이게 되었다. 전체 열 두 부분으로 텍스트가 펼쳐지는데 필자는 이를 아홉 개 부분으로 축약, 구성하여 설명

하려 한다.

(1) 입당송, 키리에, 응답송, 트락투스 (Introitus, Kyrie, Gradual, Tractus) - 모든 작곡가들이 사용하는 텍스트로 처음 시작에 영원한 안식을 선포하는 레퀴엠 가사를 담는다. 이어 일반 미사통상문 키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넣어 일반적 미사 양식을 나타낸다. 세 번째로 응답송이 나타나 영원한 안식을 다시 한번 선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결하며 레퀴엠에서 사용하지 않는 알렐루야 대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Forgive O Lord) 텍스트로 마무리하게 된다.

(2) 부속가(Sequentia) - 부속가라고 하는 시퀀스는 심판의 날을 주제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인간의 나약함 속에 구원을 사모하는 기도로 총 19개의 내용을 담아내었다. 요약하면 이날은 분노의 날로 시작하여 나팔을 불며 심판을 알리는 장면, 죽음의 공포, 심판의 날에 전능의 왕 앞에서는 두려움,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 죄책감의 두려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등으로 연결되다가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여 이 사람을 살려주소서'라는 기도로 종결하게 된다. 작곡자들은 이 시퀀스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된다. 하지만 포레나 뒤플레는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3) 봉헌송(Offertorium) - 전통적인 미사 고유문으로 '영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라는 가사로 베르디의 레퀴엠에서 네 명의 솔로리스트 만을 등장시켜 이 부분 가사 전체를 소화해 낸 것이 특징이다.

(4) 거룩, 복 있으리라(Sanctus, Benedictus) - 전형적인 미사 통상문에서 나타나는 형식으로 "거룩, 높은 곳에 호신나, 복 있으리라" 라는 가사로 전개되며 대개 모든 레퀴엠을 쓴 작곡가들은 대개 이 부분은 화려한 푸가 형태로 곡을 쓰게 된다.

(5) 하나님의 어린양(Agnus Dei) - 미사통상문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의 가사를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미사의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불리게 되지만 레퀴엠에서는 중 후반부에 나타나게 된다.

(6) 성찬식(Lux Aeterna) - 레퀴엠 미사 가운데 성찬식을 알리는 전주곡으로 주님께서 영원한 빛으로 그들에게 비추게 하소서 라는 텍스트를 담고 있다.

(7) 자비의 예수(Pie Jesu) - 레퀴엠에 사용되는 중요한 모티브 형태의 음악으로 만들어지며 자비로운 예수여 저들에게 안식을 하라하소서 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작곡가들은 소프라노 솔로로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를 만들거나 소프라노 솔로와 합창을 대비시켜 대화체 형식으로 텍스트를 전개한다. 포레나, 뒤플레가 작곡한 이 곡들은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를 구사하여 레퀴엠의 무거움을 소망과 기쁨으로 전환 시키게 하였다.

(8) 응답송(Libera me) - 대체적으로 레퀴엠의 가장 마지막에 놓이는 부분으로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사제실에서 부르는 응답송으로, 죽은 자를 위한 사제의 예식인 진혼 미사 직후와 매장 전 관 앞에서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예식이다. 텍스트는 "주여, 저를 구하소서" 라는 외침으로 시작되며 긴 푸가 형태로 음악적 화려함 속에 음악의 종결을 맞이하게 된다.

(9) 후주(In Paradisum) - 레퀴엠의 후주 부분으로 자주 사용되지 않으나 가사의 내용은 "천사들이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합창으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라는 텍스트로 되어 있다. To be continued.

yoan@wmu.edu

2024년 9월 16일(월)

추석 성묘행사

우리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하늘가족이
연례 성묘행사를 개최합니다.

- 접 수 : 중앙장의사 (718)353-2424
우리 어덜트데이케어 (718)709-4747
- 출발장소 : 중앙장의사 9:30AM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11358
- 방문요지 : 무궁화동산, 파인론, 성 찰스묘지
- 접수마감 : 2024년 9월 10일(화) 오후 5시까지
- 기 타 : 성묘객을 위한 송편, 음료, 성묘꽃을 제공합니다.
- 주 최 : 하늘가족재단
- 주 관 : 중앙장의사
- 후 원 : 산수갑산2, 우리어덜트케어, 후러싱 회원, 해피꽃집



뉴욕·뉴저지 대표번호
Tel: 888-353-2424



당신의 빈자리... 태어나던 날 만큼이나 마음을 다하여 모셔드립니다



누구나 그 자리를 비워야만 하는 날이 오지만,
보내는 가족은 늘 아픔과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도록
머리카락 한올까지 흐트러짐 없는
최고의 예를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을...
하늘가족, 중앙 장의사

NY: (718)353-2424
NJ: (201)945-2009

70대 이상 파킹 가능한 대형 피킹장 완비

NY(뉴욕)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뉴저지) 809 Broad Ave. Ridgefiel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가정선교

92.부부싸움의 12가지 원칙

부부싸움은 가정부흥회이다!

부부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결혼은 부부싸움을 반드시 동반하므로 부부싸움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부부갈등은 결혼생활 중에 누구나 다 반드시 겪어야 할 필요한 과정입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혹자가 말한다면, 이는 분명히 최고의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고, 남편이 헐기와 분냄으로 싸운다면, 건강한 부부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고, 서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쉬미르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등이란 본질적으로 두 사람이 각자의 개성을 인정해 주려는 노력이며, 이 개성을 그들의 관계 속에서 소멸시키기보다는 용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들의 희망인 것입니다. 갈등이란 하나의 결론이 양태될 때의 어려움이지, 병후의 징후가 아닙니다. 마치 모든 탄생이 그렇듯이 여기에도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성장은 고통과 함께 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싸움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되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라지

만 서로에 대해 분한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엡 4:26-27)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분을 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너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으며, 분을 낼지라도 분을 품지 말고, 당일에 분냄을 다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가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12가지 원칙을 지켜 부부싸움을 건설적인 기회로 삼으십시오.

1. 한 가지 주제만 다루어야 한다.
 - 2회 동시상영은 삼류극장에 서나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는 1회로 끝나야 합니다. 연속상영은 지루합니다.
2. 현재만을 취급해야 합니다.
 - 길게 잡아 24시간 이내의 것을 다 주고, 공소시효를 지켜야 합니다. 부부싸움엔 지구전은 서로에게 소모전일 뿐입니다.
3. 싸우되, 1미터 이내에서 싸워야 한다.
 - 장외경기는 곤란합니다. 무대를 시집이나 친정으로 확대하지 마십시오. 이는 반칙입니다.

4. 미봉책으로 끝내지 마라. 임시휴전은 곤란합니다. 끝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5. 제 3자를 동맹관계로 끌어들이지 마라.

- 누구의 탓으로 돌리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경우 싸움은 더 커집니다.

6. 인격모독은 피한다.

- 더욱이 상대방의 약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사람이 가진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7. 싸워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 자녀들 앞에서, 상대가 이성을 잃고 있을 경우이거나, 긴장하고 당황할 경우에는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8. 문제를 공격해야지,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문제입니다.

9.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 당신이 어떻게!고 말하는 대신, 내가 어떻게!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10. 고향을 치지 말고,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 당신은 '날' 이나, 당신은 '한 번이라도'란 마음에 상처를 주는 단어는 쓰지 마십시오!

11. 주의 깊게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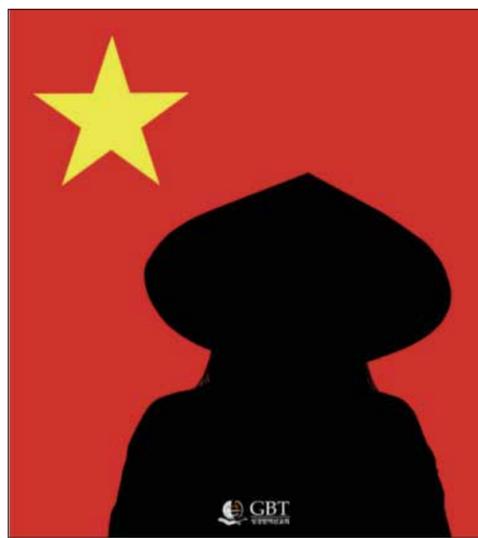
-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2. 상대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방어만 하지 말고, 나의 잘못인지도 모른다는 태도를 갖는다.

- 모름지기 부부싸움은 가정부흥회입니다. 가정부흥회는 자주는 힘들지만, 가끔은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 온 후에 땅이 굳어지듯이, 또한 부부싸움은 재탄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모르던 영역이 노출되어 나를 발견하게 된 데 대한 감사와 상대방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된 데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베트남

▲ 종족명 카오 종족

▲ 인구 약 10,000명

▲ 종교 민속 종교 95%, 복음화율 5%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기타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필 원래 라오스 북부에 살았으나 지난 두 세기 동안 거주지가 베트남, 중국, 태국으로 확대되었다. 1950년대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대량 학살을 당했다. 주 산업은 쌀농사이지만 어업으로도 생계를 이어간다. 지역신과 조상신을 숭배하는 전통 종교를 믿는데, 그들이 믿는 것들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

▲ 기도제목

1.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전달되어 대량 학살과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도록
2. 카오족과 복음을 나눌 일꾼과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 주시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베드로 진서 29



김진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세월을 돌아보며

한 목사의 고백이다. 토론도만 아니라 어느 도시나 현역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고 세월이 지나 은퇴하신 은퇴 목사회가 있다. 그런데 한 은퇴 목사님이 자신은 결코 은퇴 목사님들의 모임

에 나가시지 않는다고 하실 때 수긍도 되고 의문이 들기도 했다. 단서를 붙였다.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했다. 나가시지 않는 이유는 셋이다. 첫째 연세 많으신 어른들의 모

습이 너무 초라하다는 것이다. 그 모습이 자신에게 비추어지면서 나 역시 저렇겠구나 하며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강단에서 반짝이시던 그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둘째 모두가 연세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있다는 말씀을 이리저리 내놓으시는데 나 역시 자꾸 어딘가 아프지 않는가 하는 반문과 함께 자신도 환자로 느껴 지신단다.

문제는 셋째였다. 저들의 섬섬함이었다. 자식이나 성도들에 대한 섬섬함이다. 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젠 나를 모른 채 한 다며, 아무개 장로는 내가 안수 했는데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지금도 섬섬하다. 아무개는 결혼 주례까지 해주었는데 두 내외가 나를 그렇게 박대할 줄이야 하는 식이다. 찬양과 감사 그리

고 기쁨을 가르쳤던 목사님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하는 생각과 함께 성도들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에 대한 기도와 배려가 좀 더 있었으면 했다.

revpeterk@hotmail.com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 48 회기 목사 장로 기도회

For it is made holy by the word of God and prayer

주제: '교회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딤후 4:5)

일시

2024년 11월4일(월) 오후 5시 - 11월 7일(목) 오전 9:30분까지, 3박 4일

대상

목사 부부, 장로 부부

장소

남가주기쁨의교회(이항영 목사 시무)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 각 노회 후원금을 요청합니다. 후원금: \$1,000 (각 노회에서 보조해 주신 후원금은 전액 참석하는 해당 노회원들에게 다시 돌려주어 호텔과 차량 렌트비에 보조합니다)

■ 후원금 및 찬조금 보내실 곳 : Pay to order: RPCSC ('메모'란에 '목사장로기도회' 표기 부탁드립니다)

Mailing address: Rev. Daniel Whang Young Lee

Rejoicing Presbyterian Church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총회장: 권혁천 목사 | 서기: 김대업 목사 | 교육부 부장: 장용호 목사 | 교육부 서기: 이광형 목사

이성자기자의 **바이블 에세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아침저녁으로 소슬하게 불어오는 바람은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간 여름을 식혀내고, 파란 하늘은 가을의 얼굴이듯

혼을 간직하기 위해서, 죄와 악을 씻어버린 순수한 영혼을 소유하기 위하여, 순결하고 향기로운 국화 향기를 머금은

리지 않는 몸과 마음을 간직하기 위하여 기도하자. 세상에 시들어버리지 않는 육체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싶은 것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구비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리를 까마귀 같이..."-김현승 님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에서



이 간간이 그 모습을 내밀고 있다. 벌써 코스모스가 피고 고추잠자리가 맴도는 가을이 왔다. 이 청아하고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에 우리는 무엇을

영혼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언제 어디서나 말해도 싫증이 나지 않는 언어가 있다. 언제

이다. 그렇다. 세상에는 늙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육신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아름답고 싱싱한 젊은 마음을 간직할

봄은 새로운 시작, 여름은 왕성한 발전, 가을은 삶의 종말을 암시한다. 영혼의 가을에 "종말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간구해야 한다. 가을이 되면 자신을 돌아보고 각성해야 한다. "무화과의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버렸다. 낙엽이 지는 계절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읊은 시인처럼, 한 해가 지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종말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벤전 1:24-25)

할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여름 내내 무더위와 땀에 찌들던 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의 고뇌를 저 청량한 가을 하늘에 씻으며, 우리의 이상을 저 맑고 깊은 하늘에 나부끼면서, 우리의 영혼을 저 가을의 에메랄드 빛깔처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가을에는 기도하자.

어디서나 싫증이 나지 않는 행위가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 사랑은 진실한 것, 사랑은 영원한 것, 사랑은 가을의 하늘과 같은 것이다. 우리 모두 거짓 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가을에는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계절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자.

수 있게 해 달라'고. 젊음은 우리의 정신과 사상, 그리고 영혼과 육체에 언제까지나 간직할 수 있다. 그러기에 시들지 않는 마음은 우리가 귀중하게 간직해야 할 보석이다.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는 몸과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자. 풀의 꽃과 같은 오늘의 영광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자. 세세토록 있는 주님의 말씀을 영혼 속에 간직하기

나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눅 11:24). 그 누구의 혐의도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라 하자. 깊어가는 가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바란다.

sjkcdc@hanmail.net

먼저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기도하자. 투명하고 맑은 영

가을의 들풀처럼 시들어버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정전(停電)

이번 여름은 폭염, 폭우, 폭풍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아프리카,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기후변화로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전사태가 자주 일어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마비되니 은행, 관공서,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시대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중단되면 사무실 업무가 마비됩니다. 당장 온라인 예배 송출이 중단되는 상황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에는 전기들을 많이 사용하므로 과부하가 걸려 정전이 자주 발생합니다. 때로 무섭게 소나기가 내리고 비락이 치면 정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전기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철쭉 같은 어둠에 반딧불로 불을 밝히고, 호롱불 촛불 등불 아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물레방아를 돌려 힘을 모으고, 장작 불을 피워 따뜻하게 했습니다. 가마 달구지를 타고 다니고, 소를 몰며 논밭을 일구었습니다. 나귀에 짐을 싣고, 말을 타고 들판을 달렸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정전사태를 바라보며 전력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전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세계는 한순간에 대공황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폰, 컴퓨터, 인터넷, 전산 시스템, 온라인, 네트워크 사용이 중단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분야에 걸쳐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상상이 잘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에너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전력공급이 차단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중단된다면, 신앙생활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교회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신앙생활에 정전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벤전 4:10)

bible66@gmail.com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2. 방법: 추천도서 7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 3페이지 (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마감은 2024년 10월 31일(오후5시)(미 서부시간 기준)
-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4. 심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위클리(LA, 미국), 크리스티안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텔레비전(LA, 미국), 크리스천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도서구입처: 미주내 기독교 서점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임승재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도서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테데우스 윌리엄스 / 두란노



어쩌다 거룩하게 나디아 볼츠웨이버, 윤중석 역



일상의 유혹 손성현, 토기영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최상훈, 규장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 박영호, 복있는사람



생명언어로 가는 입술의 성화 이민미, 시시들



특별한 빛을 보내오는 사람들 김기석, 도서출판 KMC